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KOREAN WEALTH REPORT 2024 16th EDITION

2024

INSIGHT

부자의 경기전망과 자산관리 계획
하나은행 PB에게 듣는 자산관리 TIP
3고(苦)시대 부자의 자산관리
남녀의 자산관리

SPECIAL THEME

부자에게 돈이란?
부자의 행복
부자의 자화상
미래를 위한 상생의 나눔

LIFE & CULTURE

부자의 루틴
부자의 취미
하나은행 아트뱅크 서비스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





가장 많은 손님의 선택 가장 앞선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자산 증가1위 달성!

(2023년 연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기준)



2023년 전금융권 퇴직연금 자산증가 1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 기준)

2023년 은행권 퇴직연금 성장률 1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 기준)

2023년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사업자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상위 10% 사업자)

※ 하나 연금닥터는 하나금융그룹 퇴직연금 전문 브랜드입니다. ※ 이 금융상품은 사업자가 적립금 운용 상품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만, 상품결정권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DC/IRP]의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DC/IRP계좌]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 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작을 경우 최대 환급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의 발생여부 등에 따라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https://www.hanabank.com>), 모바일앱(하나1Q)을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고객센터 1599-2080 [운영시간 (영업일 09:00~18: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0266호(2024.01.25~2024.12.31)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118호(2024.02.08~2025.01.31)/CC브랜드 240122-0213

PROLOGUE

2024 대한민국 웰스리포트 은행장 추천사

어둡고 긴 코로나19 팬데믹의 터널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된 2024년은 우리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고착화와 지정학적 갈등의 발생,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2024년은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변동성이 높아져 더욱 어려워진 투자 환경에서 부자들의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은행은 2007년부터 매년 부자들의 자산관리 방식 및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는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자들의 자산관리 실천과 변화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최우수 PB'들이 추천하는 2024년 자산관리 TIP을 전하며 여러분의 자산관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부와 행복'에 대한 고민을 함께 들여다보며 진정한 돈의 가치를 되새겨보고자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손님들께 진정성 있는 최고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행장 이 승 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통합대상 수상

ICT AWARD KOREA 2023
디지털 혁신부문

내 자산을
잘 보여주는

내 자산을
잘 진단하는

내 투자를
잘 도와주는



나만을 위한 AI 자산관리

하나은행 아이웰스 (AI Wealth)



하나원큐에서
아이웰스 만나보기

초개인화 AI 자산관리 솔루션
Ai Wealth
아이웰스



[자산 현황]

157가지 관점에서
고객 보유자산을
입체적으로 분석



[자산 진단]

고객 보유자산의
정밀한 진단 및
솔루션 제시



[AI 투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투자성향에 따라
맞춤형 상품 제안



[구독 생활]

시장, 세금, 부동산 등
고급금융정보
무료제공



[유의사항] ※하나원큐는 하나은행의 대표 스마트폰뱅킹 브랜드입니다. ※아이웰스는 하나은행의 초개인화 AI자산관리서비스 브랜드입니다. [예, 적금]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 후 금리 등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고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펀드 및 신탁)]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본 홍보물은 2024년 0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안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3-03889호(2023.10.19 ~ 2024.09.30) ※준법감시기 심의필 제2023-광고-1068호(2023.10.18 ~ 2024.09.30) /CC브랜드231018-155

CONTENTS

04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2024

01

INSIGHT

- 10 부자의 경기전망과 자산관리 계획
- 14 하나은행 PB에게 듣는 자산관리 TIP
- 18 3고(苦)시대 부자의 자산관리
- 26 남녀의 자산관리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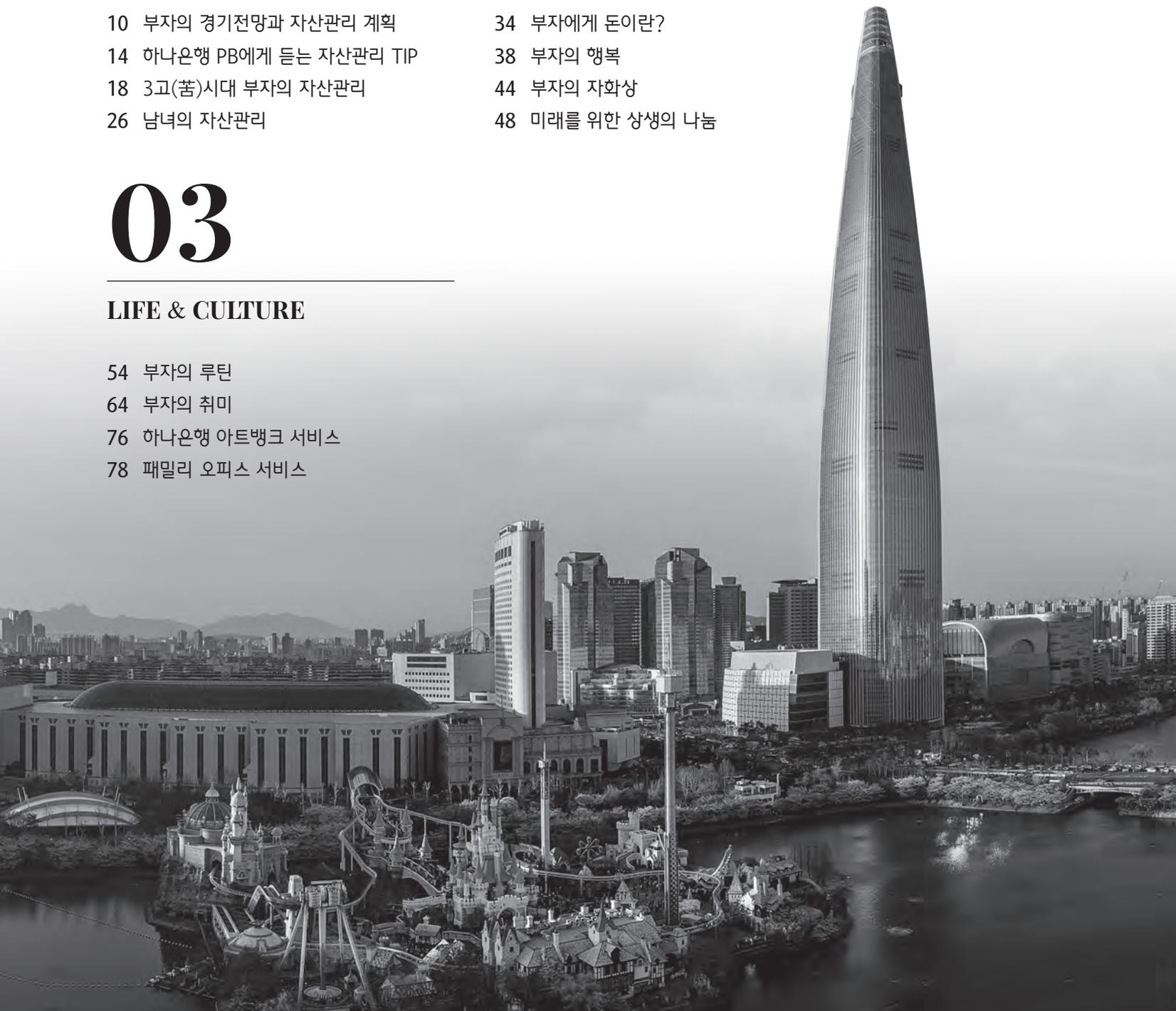
SPECIAL THEME

- 34 부자에게 돈이란?
- 38 부자의 행복
- 44 부자의 자화상
- 48 미래를 위한 상생의 나눔

03

LIFE & CULTURE

- 54 부자의 루틴
- 64 부자의 취미
- 76 하나은행 아트뱅크 서비스
- 78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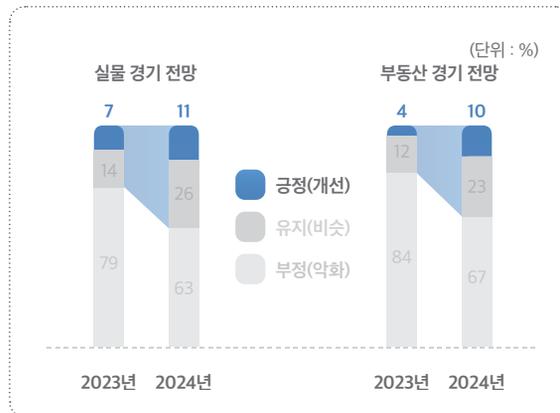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2024

INSIGHT1. 자산관리 특징 | 부자의 자산 관리 성과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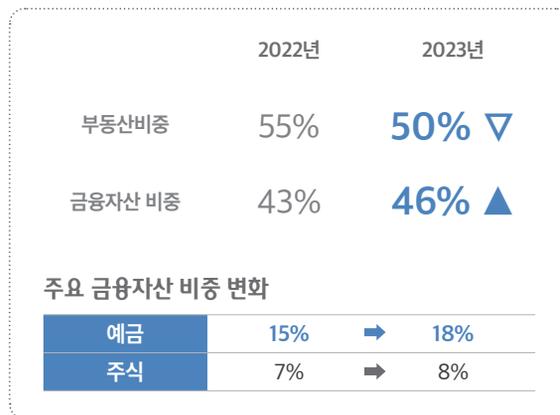
부자의 2024년 경기전망

- 올해 경기 전망은 부정 시각이 우세하나
지난 조사 대비 **긍정 의견 회복**
- 포트폴리오 큰 변화없이 시장을 관망하며
예금 등 **저축상품** 활용으로 안정 추구,
부동산 회복 기대하며 **투자 염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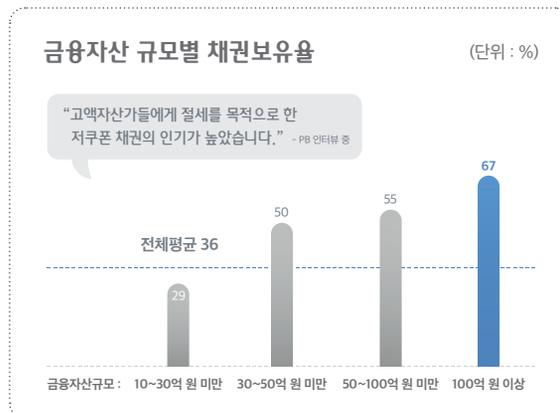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 부자의 총자산은 지난 조사에 이어 **감소세**,
부동산 비중이 **축소된** 영향
- 금융자산의 비중은 **증가**하며 특히, 고금리의 영향으로
예금 비중이 **높아져**



부자의 금융자산 운용 성과

- 부자의 2/3가 금융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 확보
- 수익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준 금융상품 1위는 **예금**,
올해는 특히 **채권투자**를 통한 **매매차익**과 **절세**의 일거양득 성과
- 해외주식 등 **외화자산** 운용과 **금(金)** 등 실물자산 운용도 활성화



INSIGHT2. 2024 상품 PICK | 2024 PB(Private Banker)의 추천 상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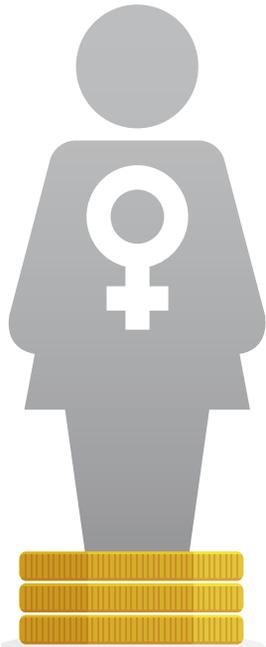
“2024년, 금리와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채권	2024년은 금리인하 시 이자수익과 자본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채권 투자의 적기. 변동성을 고려해 장단기채를 적절하게 운용
ETF	금리인하는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변동성에 대비해 분할매수형 ETF 등을 통해 국내 반도체나 코스닥 종목에 투자
외화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위험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외화예금, 외화보험 등 안전 자산에도 분산 투자

INSIGHT3. 집중분석 | 男과 女의 자산관리

“내 돈이 아닌 가족 돈을 관리”

“내 돈을 내가 관리”



50%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

39%

금융자산 중 투자형 상품 비중

29%

자산 운용의 적극성 (포트폴리오 조정)

58%

금융/투자의 (+)수익률 확보

은행PB

정보 수집 채널

관대/여유

인성적 특징

자손

상속/증여 고려 대상

46%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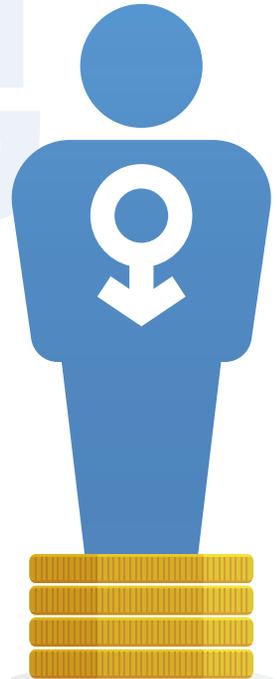
35%

74%

신문/잡지

목표지향

배우자



관리 자산 규모 여성의 1.6배

SPECIAL THEME1. 부자의 행복

돈의 의미

- 부자는 돈을 '편안함',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며 일반 대중보다 긍정적 의미 부여
- 일반 대중은 돈을 '삶의 전부'라고 여길 만큼 절실함이 크고, 불평등하거나 고통 등의 부정적 인식이 더 큰 편

돈과 행복의 비례: 50억 원의 변곡

- 총자산 50억 원까지 삶의 만족률 지속 상승, 이후 감소하다 70억 원 이상에서 크게 반등
-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4억 원, 총소비액을 기준으로 보면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삶의 만족률 하락-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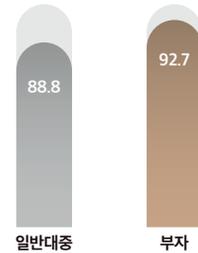
삶의 만족

- 전반적으로 삶에 만족하는 비율은 일반 대중보다 부자에서 2배 가량 더 많아
- 부자들이 가족관계, 여가, 사회생활 등에 더 만족하며, 경제적 요인 외 가족 및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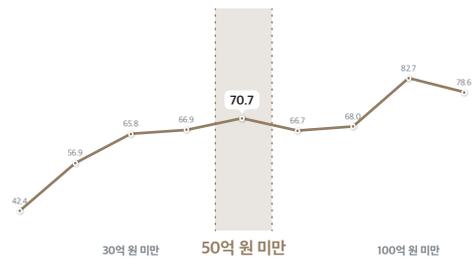
부&행복을 부르는 성격

- 부자는 일반 대중에 비해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관대하다고 평가, 특히 초부자는 목표지향적이고 똑똑하다고 자평
- 한편, 착하고 감성적이기 보다 스스로를 신뢰하고 목표를 추구하는 성격이 부&행복의 가능성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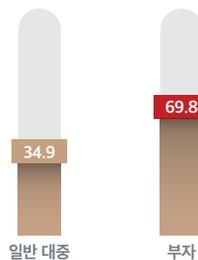
돈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 비율 (단위 : %)



총자산에 따른 전반적 삶의 만족도 (단위 : Top 2, %)



'일반 대중-부자'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 (단위 : %)



삶의 만족&인성적 특징 (단위 : %)

	만족	불만족
목표지향적인	29.6	19.1
믿음직스러운	25.2	15.3
착한	17.2	32.5
감성적인	18.3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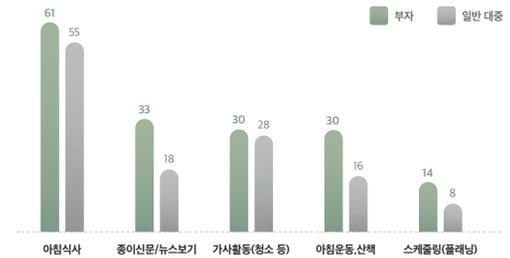
SPECIAL THEME2. 부자의 루틴

오전 루틴

- 부자는 본격적 하루를 시작하기 전 **종이신문/뉴스보기**로 세상의 이슈를 챙기고 **아침 운동/산책**으로 심신을 깨우며, **스케줄링**을 통해 하루를 계획
- 일반 대중이 부자보다 연예/스포츠에 관심이 많다면, 부자는 **경제 뉴스**에 월등히 높은 관심

부자-일반 대중 오전 루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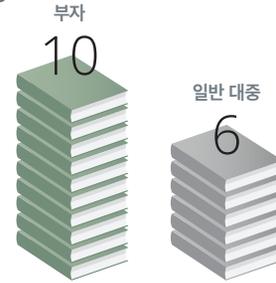


부자의 독서습관

- 부자의 독서량은 한달에 한 권 꼴로 일반 대중보다 더 많고, 슈퍼리치(연간 20권)는 부자보다 2배 더 많아 **경제력과 독서량이 비례**
- 부자는 **인문·사회** 분야의 책을 가장 선호해 교양과 지적 욕구를 충족하고, 일반 대중은 **소설과 자기계발서**를 선호해 재미와 자기발전에 관심

연간 독서량

(단위 :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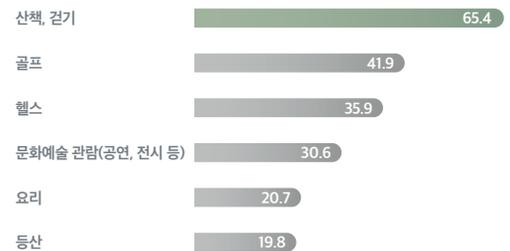


심신을 챙기는 부자의 취미

- 부자는 **산책과 걷기**를 취미 삼아 일상 속에서 심신을 단련
- **골프와 헬스**로 건강을 관리하는데, **골프는 건강관리 외 친목 도모의 목적도 큰 편**
- 운동 다음으로 **문화예술 관람과 요리**를 취미로 하며, 특히 슈퍼리치는 **컬렉팅과 파인다이닝**에 관심

부자의 취미

(단위 : %)



하루를 길게, 바빠도 가족 우선

- 평균수면 7.3시간으로 일반 대중보다 0.5시간 짧아
- 부자 10명 중 7명은 주 3회 이상 가족과 함께 식사, 거의 매일 식사도 40%에 달하며 일반 대중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길어

부자-일반 대중 평균 수면 시간

(단위 : 시간)



PART 1

INSIGHT

부자의 경기전망과 자산관리 계획
하나은행 PB에게 듣는 자산관리 TIP
3고(苦)시대 부자의 자산관리
남녀의 자산관리



2023년은 고금리, 고물가, 교환율 여파 등으로 부동산, 금융자산의 변동성이 커진 시기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서 금과 달러 등 전통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며, 규모 또한 증가했다.

PB 인터뷰 중

”

투자형 자산을 줄이고 안정형으로 이동했다. 한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부동산에 한파주의보가 불면서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했고,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 시 매수를 고려하려는 분이 늘었다.

PB 인터뷰 중





“ 2024년 금융시장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으되 봄 같지 않고 ”

THE RICH'S ECONOMIC OUTLOOK

엔데믹 원년이 될 2024년, 부자의 경기전망과 자산관리 계획

2023년 5월,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속화 됐다.
엔데믹의 실질적 원년이 될 2024년 한 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융 환경의 혼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자의 자산관리 계획을 살펴보았다.

개선된 경기전망... BUT 여전히 낙관치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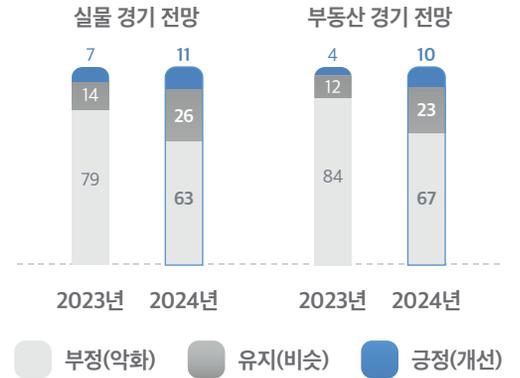
2024년 실물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 부자의 비중이 지난 조사 대비 증가 했지만,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즉, 지난 조사에서 부정적 인식이 약 80%로 매우 높아 기저효과로 인한 개선이 부각될 수 있지만, 부자들은 올해 경기 상황도 낙관치 않을 것을 예상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물 경기의 경우 긍정 전망(2023년과 비슷 또는 개선)은 37%로 지난 조사 대비 16%p가량 증가했고, 부정 전망은 63%로 16%p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또한 긍정 전망이 33%로 지난 16%와 비교해 크게 높아졌으나 부정적 시각이 67%로 더 높았다.

2024년 경기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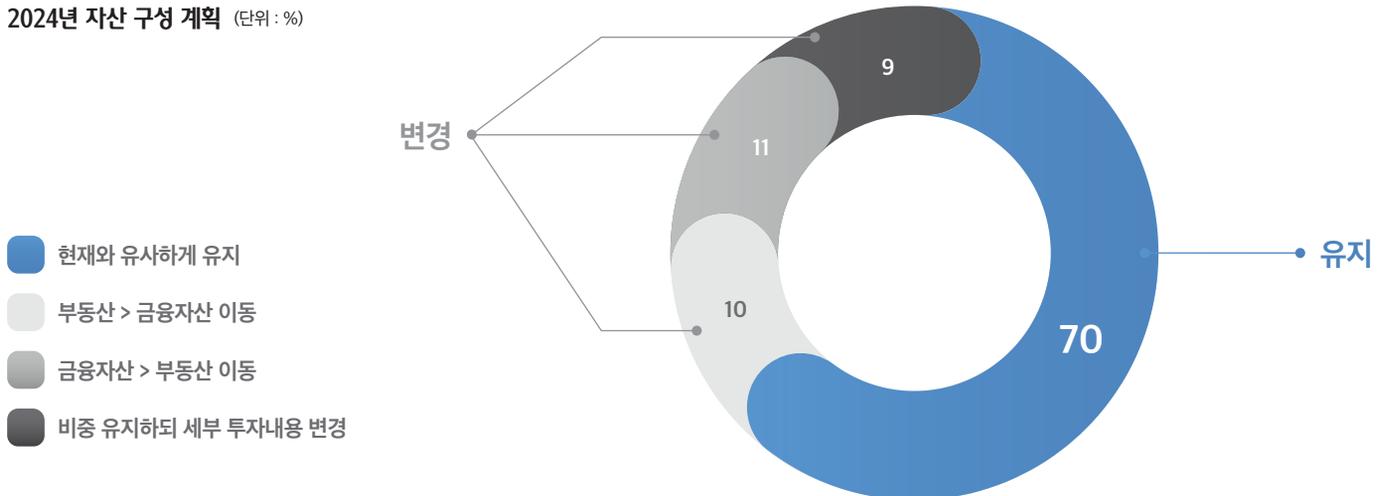
자산 포트폴리오? ‘유지:변경=7:3’... ‘유지’ 우세

경기 예측을 기반으로 2024년 자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계획을 물어본 결과, 부자 10명 중 7명이 ‘지난해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난 조사에서 10명 중 5명 이었던 것과 비교해 관망세로 돌아선 부자가 더 늘어난 셈이었다.

‘부동산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겠다’, ‘금융자산을 줄이고 부동산 비중을 늘리겠다’, 그리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은 유지한 채 세부 투자 구성만 바꿀 것이다’는 응답이 각 10%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비 금융자산을 늘리겠다’는 비중은 10%p 감소한 반면, ‘부동산을 늘리겠다’는 비중은 소폭 증가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조심스레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2024년 자산 구성 계획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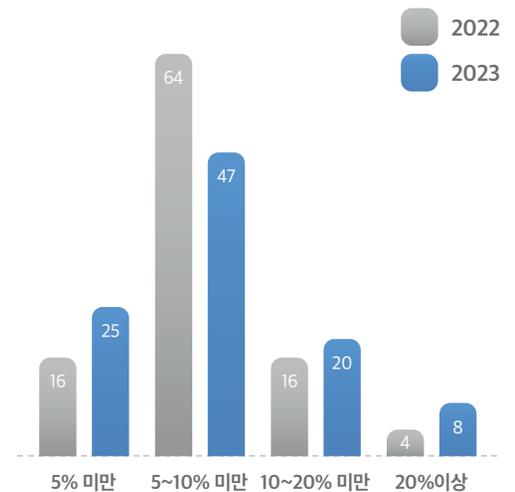


금융자산 운용 목표 수익률 기대, ‘양극화’ 인식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융자산 목표 수익률은 5~10%에 구간에 가장 많이(47%) 분포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17%p 감소했다. 여전히 경기 회복의 부정 시각이 우세한 만큼 5% 미만의 저수익을 목표로 하는 부자 비율은 지난 결과보다 9%p 증가한 25%를 나타냈고, 동시에 경기 회복의 긍정 시각이 개선됨에 따라 10% 이상 고수익을 기대하는 비중은 약 7%p 증가해 28%에 달했다. 즉, 2024년 경기 전망에 따라 금융자산 운용 성과에 대한 기대 또한 양극화되는 모습이었다.

특히, 고수익을 기대하는 경우, 유동 자산 비중을 높게 유지하며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상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했다. 금이나 예술품 같은 실물자산을 활용하려는 의지도 더 높았다. 이들은 과거(2023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확보했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 한 해도 시장을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듯 했다.

2024년 금융자산 목표 수익률 (단위 : %)



추가 투자계획 1순위는? ‘부동산’... ‘계획 없음’도 상당수

2024년 추가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 1순위는 여전히 부동산이었다. 하지만, 응답률이 32%에서 24%로 감소해 예금(22%)과의 선호도 격차가 좁혀졌다.

예금 다음으로 투자 의향을 보인 상품은 주식이었다.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주식보다 예금의 투자 의향이 더 높은 이유 중 하나로 대기자금 보관 목적이 추측됐다. 즉, 지난해 하락하던 부동산 가격이 변곡점을 지났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을 관망하며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대기자금을 안전하게 예치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해석됐다.

부자 10명 중 9명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4년 보유 부동산 매도 의향보다 매수 의향이 더 높아 안전하게 대기자금을 둘 곳이 필요할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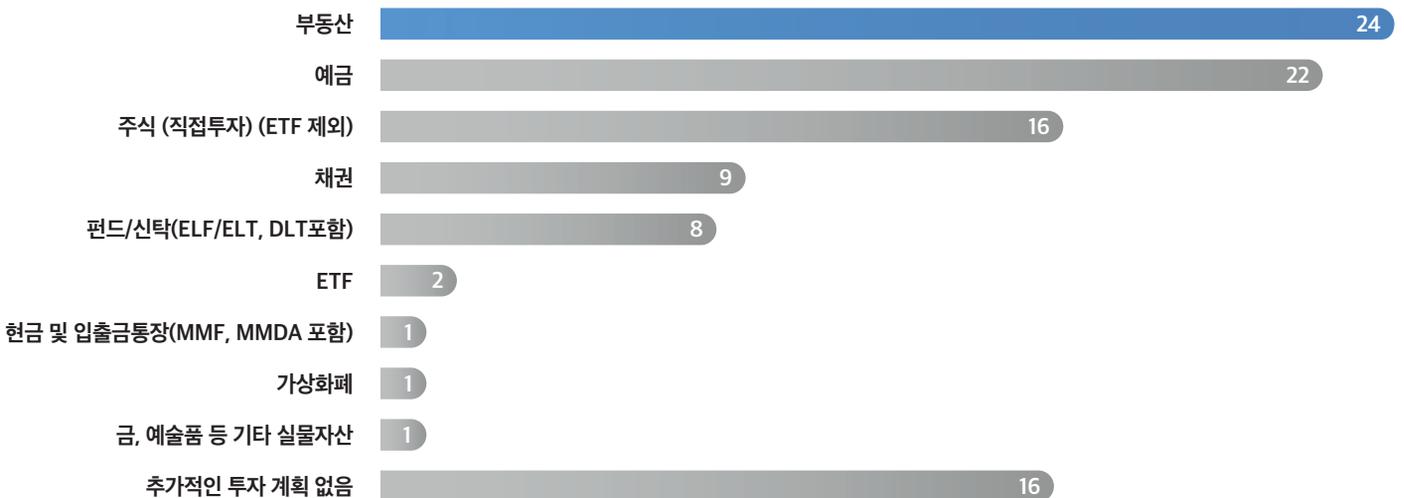
매입 의향이 있는 부동산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중소형 아파트가 가장 높았고, 토지, 꼬마빌딩이 그 뒤를 이었다. 대형 아파트의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30대 이하 젊은 부자는 아파트 다음으로 해외부동산(아파트, 단독주택) 매입 의향이 높게 나타나 외화 자산의 범위가 금융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추가 투자 계획이 없다는 부자도 약 16%로 지난 조사(5%)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자산의 리밸런싱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높아진 것과는 맥을 같이하며, 두드러지는 호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는 듯 했다.

24%

2024년 추가 투자 의향 1순위
부동산

2024년 추가 투자 계획 항목(1순위) (단위 : %)





ASSET MANAGEMENT TIPS SHARED BY PRIVATE BANKER

자산관리 명가, 하나은행 PB에게 듣는 2024년 자산관리 TIP

2024년 금리와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겠지만, 예상보다 더딘 하락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하락하더라도 과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금융상품을 긍정적으로 보고있을까?

2024년 눈여겨봐야 할 상품을 대한민국 대표 PB은행인 하나은행 PB들에게 물었다.

1. 채권

2024년에도 채권의 매력은 지속

2023년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주식보다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로 고액 자산가들의 절세를 목적으로 한 저쿠폰채 투자 수요가 크게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장기물, 국채 위주로 거래가 증가해 개인들의 채권 순매수액은 2022년 대비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대비 8배 넘게 급증하며 '채권개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2024년에도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관리 TIP

PB 1

2024년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높은 이자수익에 더해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채권 투자의 적기**가 될 것이다. 다만 변동성을 고려해 **장기채와 단기채를 적절히 분배**해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만기매칭형채권 ETF로 대기자금을 단기 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PB 2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향후 몇 달 간 금리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해 **안전자산 목적으로는 단기채, 장기 운용 여력이 있어 5개월 이상 보유할 수 있다면 중장기 국채**를 추천한다.

PB 3

금리 하락 추세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인컴(고정수익)을 우선 고려해 **국채 같은 장기채권** 매입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을 노려볼 수 있다.

PB 4

2024년 3~4회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해 20년 이상 **미국 장기국채 현물**에 투자하고 이자수익을 월 분배 해주는 상품을 추천한다.

PB 5

하락한 엔화를 매수해, **일본시장의 미국채 중장기 ETF**에 투자해 볼 만 하다. 엔화 환율 상승 및 기준금리 인하 시 미국국채가격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엔저 현상 장기화로 엔화와 미 국채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다.

잠깐! 금융 상식 | '만기매칭형채권ETF'란?

2022년 11월 최초 상장된 상품으로 만기가 존재하고 존속 기한 이후에는 상장 폐지 되어 이자수익과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듀레이션에 맞춰 채권을 롤오버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기존의 채권형 ETF와 달리 연속성이 없고 만기까지만 운용되는 것이 특징으로 정기예금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2. ETF

분할매수형 ETF로 변동성 대비, 안정적인 투자

2024년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신중한 낙관론이 우세하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야 한다. 이에 저점 투자 기회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가격 하락 시마다 분할 매수해 평균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분할 매수형 ETF를 활용해 리스크를 관리하며 차분하게 투자하는 것을 제안한다.



자산관리 TIP

PB 1

금리 인하가 예견되어 있어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주식형 상품을 주가 하락 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분할매수형ETF 등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PB 2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주가 하락 시 분할 매수하고, 목표수익률 도달 시 자동 환매되는 펀드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국내 반도체나 코스닥 종목이 유망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외화

외화예금 및 외화보험 등 안전자산에도 분산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무엇보다 자신의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2024년에는 특히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고,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안전자산인 외화 예금이나 보험 등으로 안정적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을 제안한다.



자산관리 TIP

PB 1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제 거래에 있어 기본이 되는 달러와 함께 **저환율인 엔화 예금을 추천**한다. 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PB 2

달러의 장기보유를 원하시는 손님께 적합한 장기 확정 금리 상품인 **달러 거치 확정형 보험**을 추천한다. 고금리 확정금리 확보가 가능하며 금리 하락 시 시장가격조정률(MVA)에 따른 해약환급금과 비교해 해지도 가능하다.

MINI NEWS

하나은행은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수상했다. 2023년에도 글로벌 금융전문매체 더 뱅커(The Banker)誌와 PWM(Professional Wealth Management)誌가 공동 주최한 '제15회 글로벌 PB어워드(Global Private Banking Awards 2023)'에서 국가별 최고상인 '2023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Best Private Bank in Korea)'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 은행임을 국내외에 재확인 시켰다. 2023년 기준 통산 11회째 수상이다.

하나은행
The Banker·PWM誌 선정
2023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 2023 글로벌 4대 PB어워드 그랜드슬램 달성 》

Euromoney 2023.03 Global Finance 2023.03 PBI 2023.10 The Banker/PWM 2023.11

“부동산 및 주식 등 적극적 자산 부분 비중은 줄고, 현금성 자산 및 채권 비중은 늘었습니다.
금 및 대체자산 투자 등 방어적이고 소극적 투자를 선호했습니다. - PB 인터뷰 중”



ASSET MANAGEMENT OF THE RICH DURING CHALLENGING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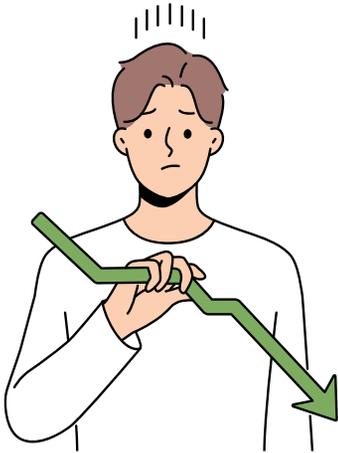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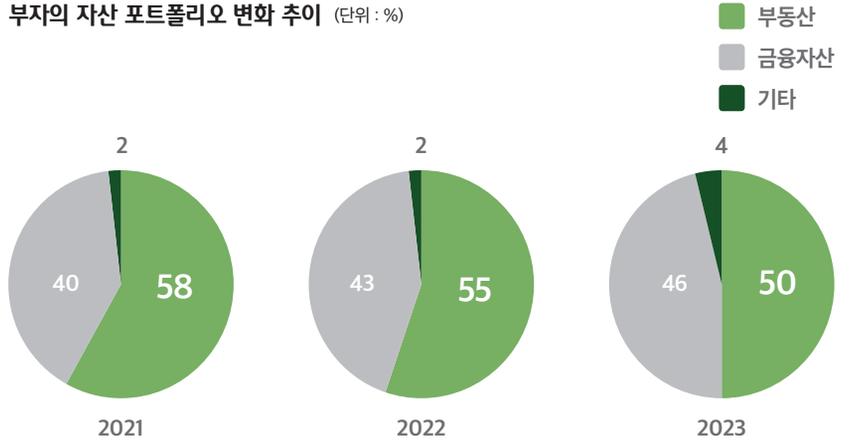
3고(苦) 시대 부자의 자산관리

2022년에 이은 고금리 환경의 지속,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던 2023년 한 해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1/2

부자의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2021년 대비 8%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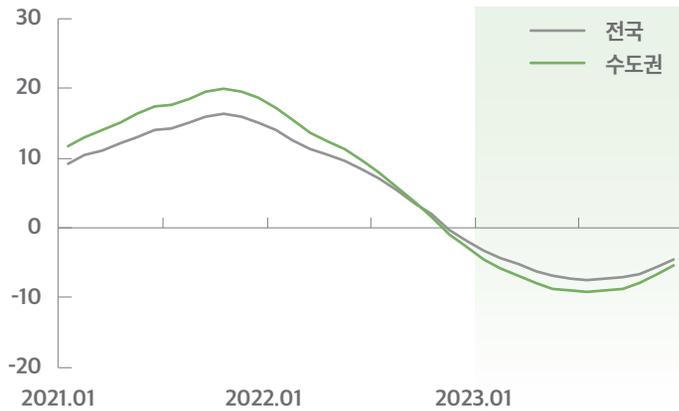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 (단위 : %)



부자의 총자산 규모는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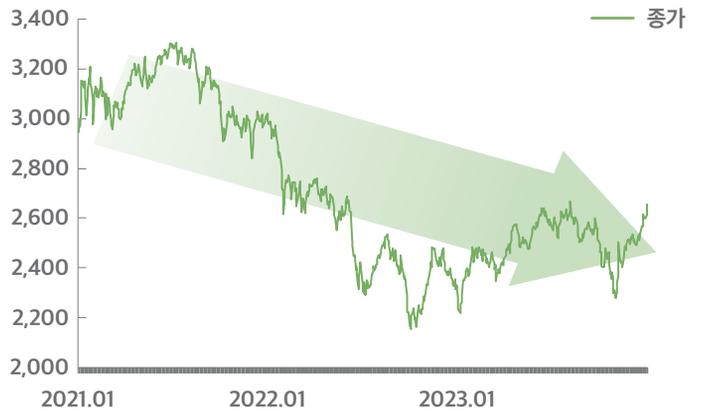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부자의 총자산은 평균 70억 원대에서 60억 원대까지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2023년 엔데믹이 선언됐으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더딘 회복을 보였고,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주식 또한 크게 반등하지 못한 영향 등이 반영된 듯했다.

참고. 부동산 가격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추이(2021년~2023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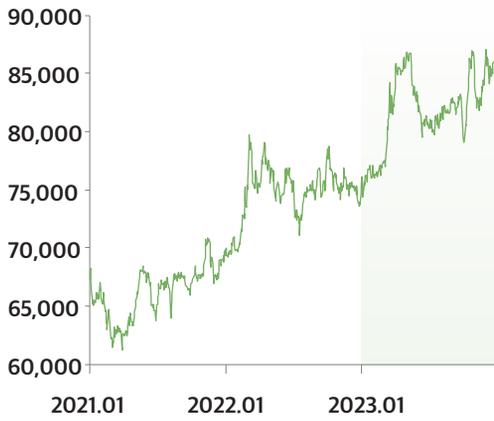
출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참고. 코스피 지수 추이(2021년~2023년) (단위 : 포인트)



출처.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참고. 국내 금 시세(2021년~2023년) (단위: ₩/g)



출처. 한국금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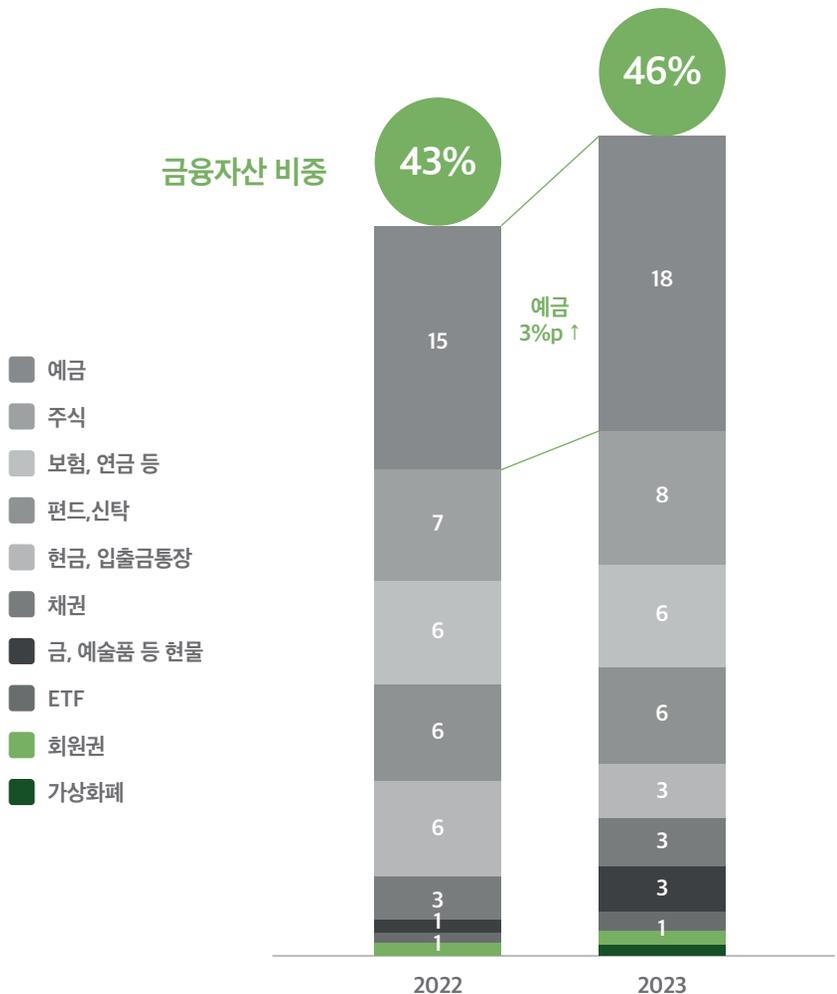
부동산 비중 줄어든 반면, 금융자산 비중 늘어

2023년 말 기준, 부자의 총자산 중 부동산이 50%, 금융자산이 46%, 실물자산을 포함한 기타자산이 약 4% 정도를 차지했는데, 2022년과 비교하면 부동산 비중이 5%p 줄어든 모습이었다. 반면, 금융자산과 기타자산 비중은 각각 3%p, 2%p 증가했다. 세부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금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금과 예술품 등 실물자산 비중이 뒤를 이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금, 예술품 등 실물자산을 보유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2년보다 14%p 증가해 부자 10명 중 4명이 보유하는 수준이었으며,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국내에서 거래되는 금 시세는 3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2023년은 2022년 대비 금값의 상승이 컸던 한 해였다.

부자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단위: %)



하나은행 PB(Private Banker)들이 체감한 2023년 손님들의 거래 특징 또한, 설문에서 확인된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안정성에 초점을 둔 자산운용을, 아울러 절세를 위한 자금 배분, 금에 대한 관심, 부동산 관망 등을 주요 특징으로 언급했다.

2022년과 비교해 2023년은 고금리, 고물가, 고회율 여파 등으로 부동산, 금융자산의 변동성이 커진 시기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장세가 끝남으로써, **금과 달러 등 전통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며, 규모 또한 증가했다.**

- PB 인터뷰 중



고금리로 인해 투자형 자산을 줄이고 **안정형으로 이동했다.** 한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부동산에 **한파주의보가 불면서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했고,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 시 매수를 고려하려는 분이 늘었다.**

- PB 인터뷰 중



2023년 손님들의 투자 특징은 주식 투자보다 **고금리를 활용한 예금으로 자금이동이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절세 채권(회사채, 유통물)에 대한 관심이 큰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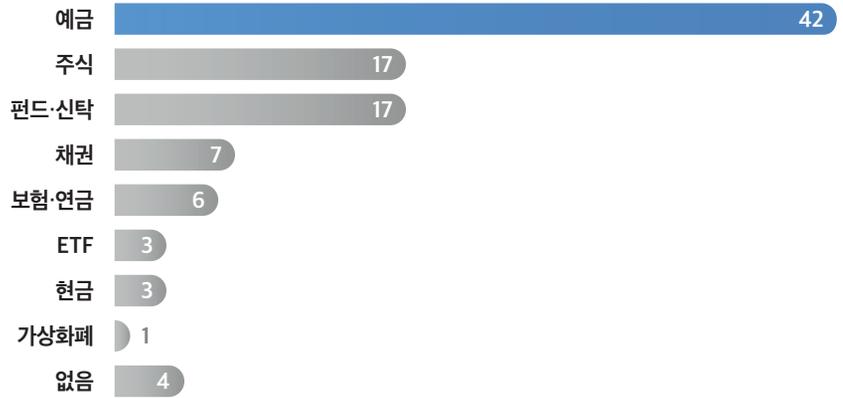
- PB 인터뷰 중



42%

2023년 한 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금융자산 1순위
‘예금’

2023년 한 해 동안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금융자산 (단위 : %)



금융자산 수익률은 2022년과 비슷, 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준 자산은 여전히 ‘예금’

2021년 → 2022년 부자가 금융자산 운용을 통해 손실을 낸 비율은 8%에서 32%로 4배 늘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2023년 한 해, 부자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 성과는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플러스(+) 수익을 낸 비율이 약 3분의2, 마이너스(-) 손실이 3분의1 가량으로 지난 결과와 비교해 큰 개선을 보이지 못했다.

2023년에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준 금융자산은 ‘예금’이 압도적이었으며, 이 또한 2022년과 다르지 않은 결과였다. 소폭이나마 주가 흐름이 개선되면서 ‘보험 및 연금’(6%)보다 ‘주식’(17%)이 수익률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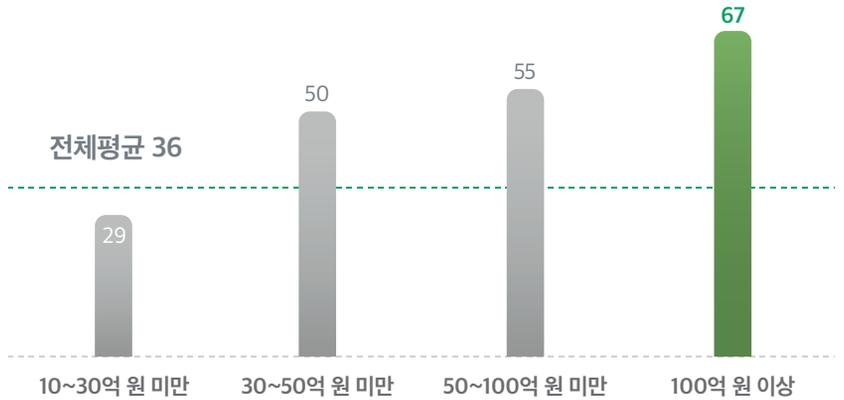
10% 이상 고수익을 거둔 부자의 절반 이상은 긍정적 영향을 준 자산 1순위로 주식을 꼽았고, 예금은 그 다음 순위였다.



1 in 4

부자 4명 중 1명은 채권 보유

금융자산 규모별 채권 보유율 (단위 : %)



“

금리 상승 및 24년까지
금투세 유예로 절세에 대한 니즈 및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했습니다.



- PB 인터뷰 중 -

발행 가격보다 싼 가격에
채권을 매수해 만기 보유 시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저쿠폰 채권이 엄청 인기였습니다.



- PB 인터뷰 중 -

고액 자산가, 채권투자로 ‘매매차익+절세’ 일거양득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 부자, 절반 이상 채권에 투자

부자의 36%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자산이 클수록 채권 보유율도
높아져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부터는 채권 보유율이 50% 이상으로 크게 증가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특히 세금 부담이 큰 고액 자
산가들에게 저쿠폰 채권*의 인기가 크게 치솟았다. 발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채
권을 매입해 만기 시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
세효과(채권의 이자수익에는 소득세가 붙지만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며, 종합소득
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까지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 저금리 시기에 낮은 표면금리로 발행된 채권

”



13%

부자들은 금융자산의
약 13%를 외화로 보유

보유 중인 외화자산 유형 (단위 : %)



해외주식 투자자 증가 금융자산의 약 13% '외화 보유'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2022년과 비교해 2023년 부자 중 외화 자산 보유자의 비중이 64%에서 67%로 소폭 증가했다. 증가 폭이 적다고 여길 수 있으나 이미 부자의 3분의2가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보유 경험까지 더하면 80%에 육박할 만큼 외화자산은 부자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필수적으로 자리잡은 자산 유형이었다.

당연히 자산 규모가 클수록 외화자산 보유율도 함께 증가해 10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는 10명 중 9명이 외화자산을 보유하거나 보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이 보유한 외화 자산 규모도 약 3억 7천만 원 정도로 상당했는데, 총 금융자산 중 외화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상회했다. 선호하는 외화 자산 유형은 외화예금, 외화현금, 해외주식 순이었고,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 해외주식 보유자 비중은 30%에서 50%로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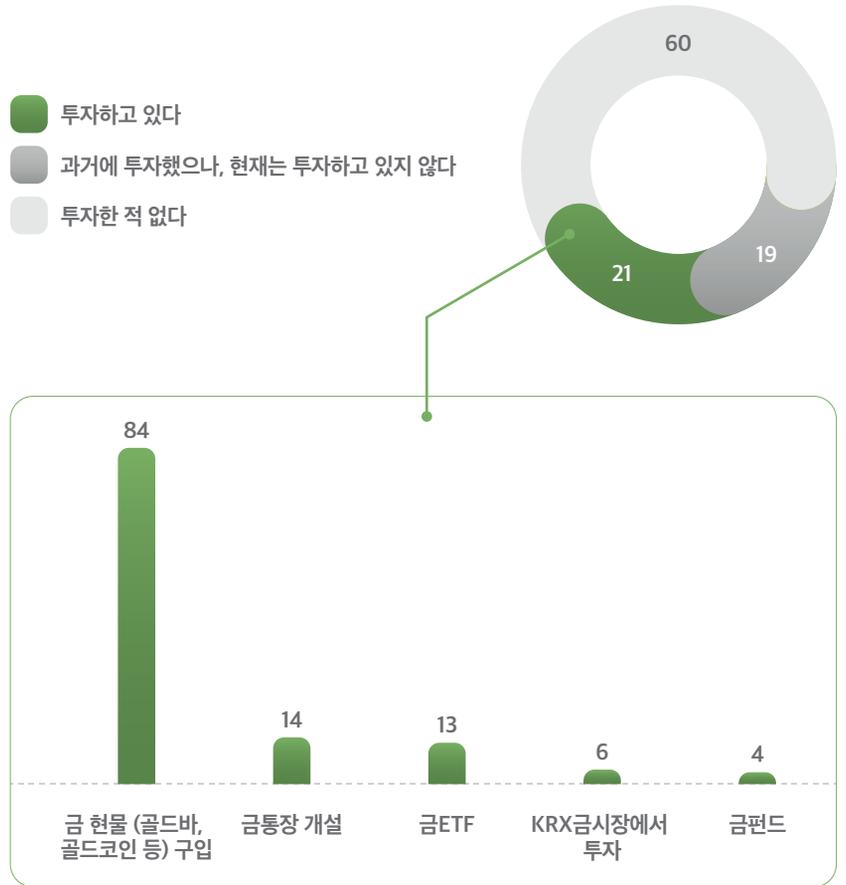
2023년 해외주식을 보유한 부자의 국내 vs. 해외주식의 투자 규모는 84 vs. 16 가량으로 2022년 91 vs. 9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가 크게 늘었다. 보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외화자산의 비중도 커지므로 해외 주식의 규모 또한 함께 증가했다. 그리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해외주식 투자 비중이 높아져 시대 변화에 따른 자산 운용의 인식 변화도 함께 엿볼 수 있었다.

보유한 외화현금의 통화 종류는 달러가 91%로 가장 많았고, 엔화(49%), 유로(15%), 위안화(9%) 순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부자의 절반 이상이 외화예금과 현금을 중심으로 추가 보유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1 in 5

부자 5명 중 1명은
금(金)에 투자

금 투자 경험 및 투자 방식 (단위 : %)



외화, 채권과 함께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金) 실물자산 투자에도 적극적

2023년 말을 기준으로 부자 중 금 및 예술품 등 실물자산 보유자 비중이 약 40%로 전년 대비 1.6배 증가했다. 대표적 실물자산인 금의 경우, 부자의 약 20%가 투자하고 있었고 과거 투자 경험을 보유한 부자 역시 약 20%로 부자 10명 중 4명은 금을 활용한 투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금을 활용해 투자하고 있었다.

금 투자 시, 금을 현물 형태로 보유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었고(84%), 금 통장, 금 ETF 등의 투자 방식이 10%대로 활용되고 있었다. 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자의 절반 이상이 향후 1년 이내에 추가 거래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금에 대한 관심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MEN AND WOMEN AS HOUSEHOLD ASSET MANAGERS

남녀의 자산관리

본 보고서에서 의미하는 '자산'은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하므로 응답자 성별에 따른 분석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해당 자산을 누가 관리 및 운용하는지, 재정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분석한다면 성별에 따른 특징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녀 구분이 점차 퇴색되어 가는 시대에서 과연 성별에 따른 자산관리에 차이가 있을지, 그 특징을 분석했다.

최대한 원금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려고 해요. 이 돈은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남편의 기여가 더 크고, 저는 그저 대신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손실 위험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느껴져요.

60대 여, 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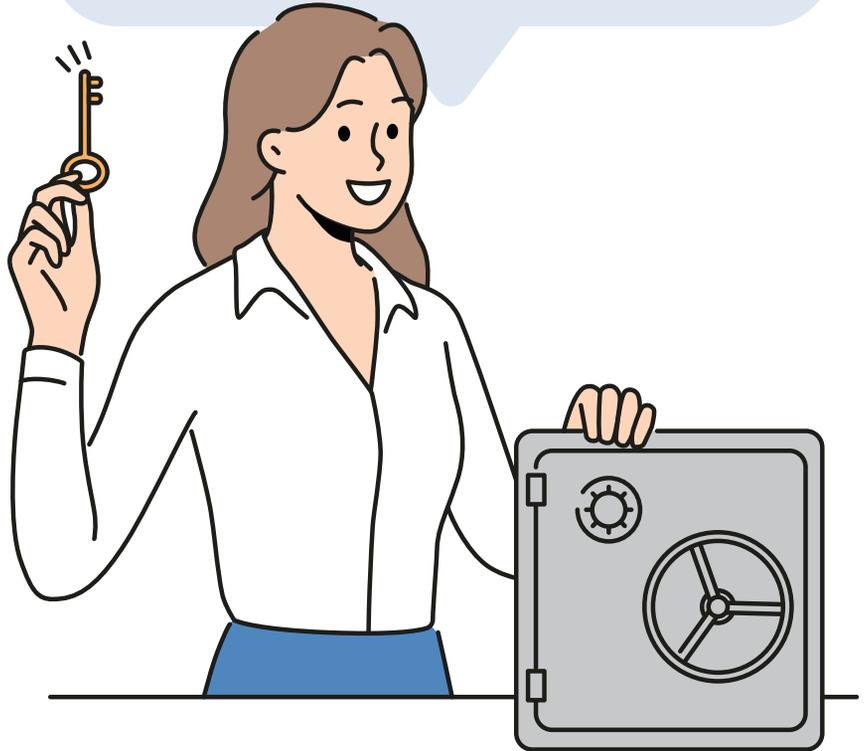
자산관리의 기본 방침은 안전이에요. 투자를 해서 돈을 늘리기보다 유지하는데 더 집중하려고 해요. 돈 관리를 직접 하다보니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져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겠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도 유지하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대 여, 전문직

자산 운용 시, 남성은 '개인적', 여성은 '가족 지향적' 관점으로 접근

전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공격적 투자 성향이 강했고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직관적 금융 상품에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의존적이며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자 했다.

여성들은 본인이 자산을 관리함에도 그 소유를 가족으로, 남성은 본인 자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자산 관리 시 중시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었다.



남녀 투자 성향 비교

	남성	여성
투자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적 · 자기주도적 (자기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적 · 의존적
관심있는 상품 / 서비스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신문 등 미디어에 기사화 된 상품에 관심 · 시장상황에 직관적인 상품 선호 · 메일이나 SNS를 통한 서비스 선호 · 금리, 구체적 상품 제한, 사항 및 사회, 경제 등의 다양한 주제로 대화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확정(정기)예금 등 원금 보장형,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품 선호 · 절세상품에 관심 · 가족 구성원의 상품 가입과 조건 등 전반적 관리 경향 · 디테일하고 세심한 관리 선호

여성, 남성 대비 '작은 규모'의 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용

가구 자산의 주 운용자가 남성인 경우 총자산 규모가 여성보다 1.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유형의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주 관리자가 여성인 경우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로 남성(46%)보다 높았고, 운용 금융자산의 비중은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 외 투자 목적의 부동산 유형도 관리 주체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상가,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의 보유율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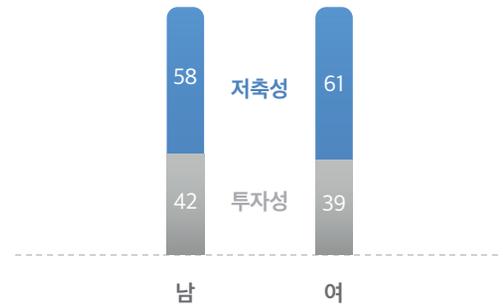
운용중인 금융자산을 저축성과 투자성으로 양분화 할 경우, 남성은 투자성 자산이 42%, 여성은 39%로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실제 남성의 주식 보유율이 여성보다 높고, 여성은 남성보다 보험 및 연금, 금 등 실물자산 보유율이 높은 것도 이를 뒷받침했다.

펀드 및 신탁 보유율은 남녀 모두 60% 수준으로 유사했고 ETF는 여성의 보유율이 더 높아 여성은 투자자산 운용 시에도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간접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상화폐 보유율도 남성이 13%로 여성(9%)보다 높았다.

부동산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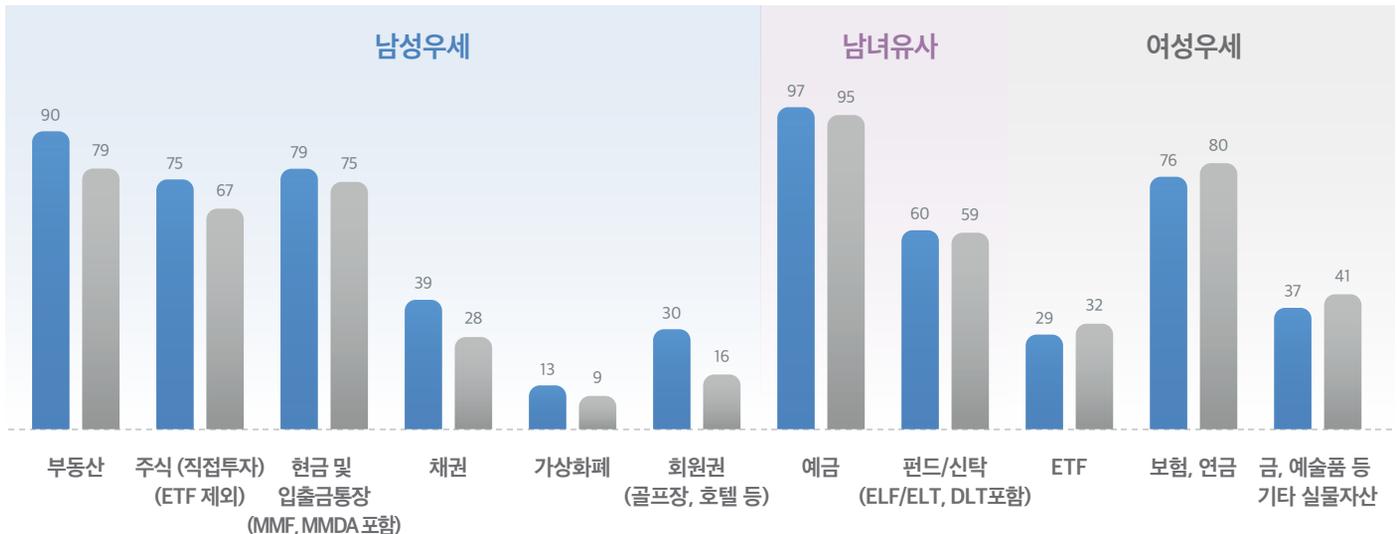


금융자산의 운용 (단위: %)



관리 주체(성별)에 따른 가구 내 보유자산 항목 (단위: %)

■ 남성 ■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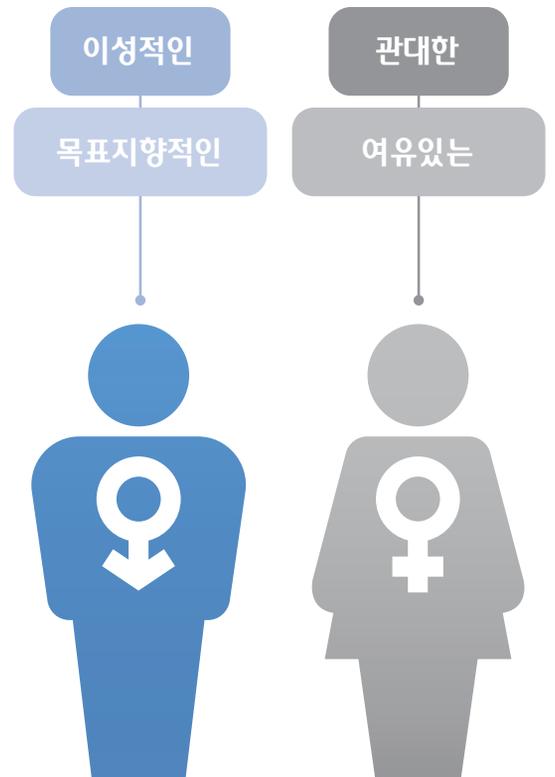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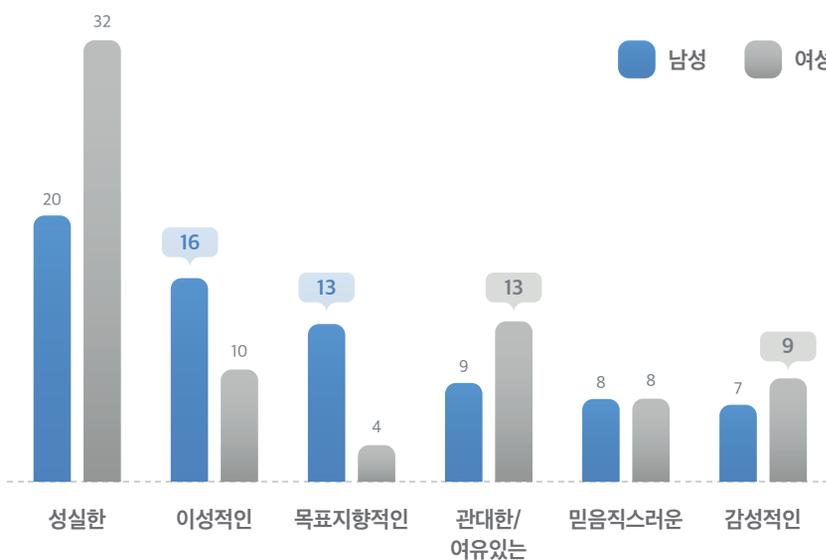


남성은 '자기신뢰', 여성은 '전문가 의존' 커

금융투자 의사 결정 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남성은 '국내외 뉴스/경제신문/잡지'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여성은 '은행PB'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남녀 모두 증권사 보다는 은행 PB를 선호했다. 또한 여성은 가족을 친구/지인이나 투자 관련 도서보다 신뢰하지만 남성은 반대였다. 가족보다 책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다는 비중이 높았다.

이는 스스로를 평가하는 인성적 특징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였다. 나를 대변하는 형용사 1개를 고르라는 질문에 남녀 모두 '성실한'을 1순위로 선택했으나 그 다음으로 남성은 '이성적인'을 선택한 반면, 여성은 '관대한/여유있는'을 선택한 비중이 높았다. 남녀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형용사는 '목표지향적인'으로 남성의 13%, 여성의 4%가 응답해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스스로를 평가하는 인성적 특성이 자산 운용 시에도 반영되는 듯 했다.

나를 대변하는 형용사(1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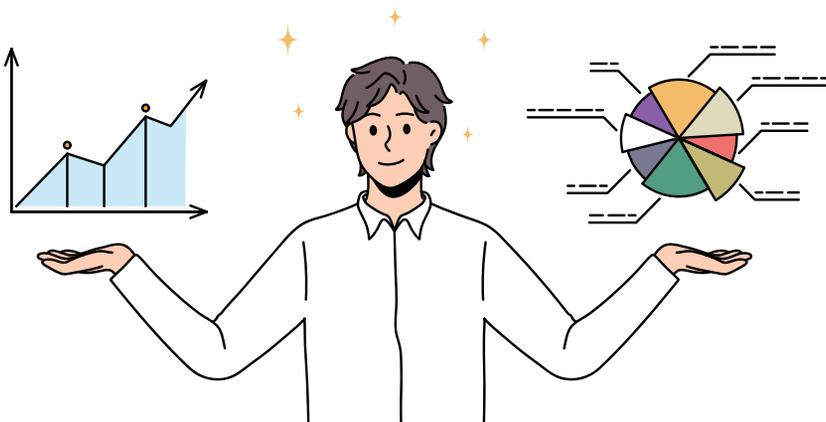
여성의 보수적 투자 성향, 수익은 제한적 성과

2023년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플러스(+) 비중은 남성 74%, 여성 58%로 남성의 투자 성과가 더 우수했다. 남녀 모두 수익률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준 자산은 예금이었고, 부정적 영향을 준 자산은 주식이었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확보했던 이유는 더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했기 때문이었다.

비중을 늘렸던 자산 항목을 보면 예금의 경우, 남성은 42% 여성은 49%가 비중을 늘렸다. 주식은 남성 28%, 여성은 17%만이 비중을 늘렸다. 이 밖에도 채권, 보험 및 연금, ETF 등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으로 비중을 조정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가치주(배당주)와 성장주로 구분했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가치주 비중이 높은 것 또한 수익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됐다.

남성, 2024년 포트폴리오 조정은 여성 대비 적극적

남성이 보유한 금융상품의 종류는 평균 6.3개로 여성(5.8개)보다 다양했다. 또한 향후 1년 동안 자산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에 대해 묻자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여성은 71%, 남성 65%로 남성이 여성보다 포트폴리오에 크고 작은 변화를 주면서 활동적으로 운용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2024년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은 남성은 부동산 > 주식 > 예금 순이었고 여성은 예금 > 부동산 > 펀드 및 신탁 순이었다.



향후 1년 내 자산 구성 계획 (단위 : %)	남성	여성
대체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65	71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릴 것이다	11	11
금융자산 비중을 줄이고 부동산 비중을 늘릴 것이다	13	8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비중은 유지하겠지만, 투자 내용은 바꿀 것이다	11	10

자산 이전 시 남성은 '배우자', 여성은 '후손' 고려

자산 이전과 관련해, 남성은 증여·상속 대상으로 자녀 > 배우자 > 손자녀 순으로 고려해 자녀를 제외하면 배우자가 우선 고려됐다. 반면, 여성은 자녀 > 조카 > 형제자매 순으로 응답해 배우자가 3순위 내 포함되지 않았고 본인의 다음 세대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더 길 것으로 예상해 배우자보다 자녀나 조카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산을 이전할 가족의 범위를 남성보다 더 넓게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됐다.

한편, 남성이 자산 운용의 주체일 경우, 운용 자산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자산을 배우자 증여를 통해 절세하려는 시도가 더 활발하지 않을까 판단됐다.



PART 2

SPECIAL THEME

부자에게 돈이란?

부자의 행복

부자의 자화상

미래를 위한 상생의 나눔



그냥 편안함을 주는 것 같은데요. 마음의 여유!
돈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지만
일상의 편안함을 주는 건 분명하지요.

60대 女(주부)

”
돈은... 글썄...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돈 쓸 시간도 별로 없고 큰 의미는 모르겠는데,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편안함은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50대 女(변호사)





돈에 이름이 있다고 하죠? 같은 돈이라고 해도 그 무게는 모두 다르다고 생각해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며 버는 돈과 도와주며 버는 돈은 다르지 않겠어요? - 50대 남 전문직



WHAT IS MONEY TO THE RICH?

부자에게 돈이란?

내가 가진 돈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돈의 쓰임새도 달라질 듯 하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한번쯤 '내가 가진 돈'의 가치를 떠올려 봐도 좋겠다.

돈은 곧 ‘편안함’의 수단

부자를 인터뷰 하면서 ‘나에게 돈이란 OO이다’라는 물음에 빈칸을 채워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곰곰이 생각하던 이들이 가장 먼저 꺼낸 단어는 ‘편안함’이었다. 돈이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도구,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대를 이어 편안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실제 부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돈의 의미를 설문했을 때, 10명 중 9명은 긍정적 측면을 먼저 떠올렸다. 구체적으로는 삶을 유지하고, ‘행복/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자, 돈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

부자가 생각하는 돈의 의미를 일반 대중과 비교하면, 부자의 응답이 대중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물론, 대중도 부자와 마찬가지로 돈의 의미를 ‘행복/편안함’(21.6%)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은 부자보다 돈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더 절실한 것처럼 보였다. 돈을 ‘삶의 전부/인생’, ‘삶의 원동력’,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부자보다 일반 대중에서 2~3배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돈의 의미를 필요악, 고통과 구속이라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부자보다 일반 대중에서 더 높은 편이었다. 그들은 돈의 불평등 측면을 인식하기도 했다.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것’, ‘계급’, ‘평가’ 등의 단어들은 일반 대중에서만 확인된 응답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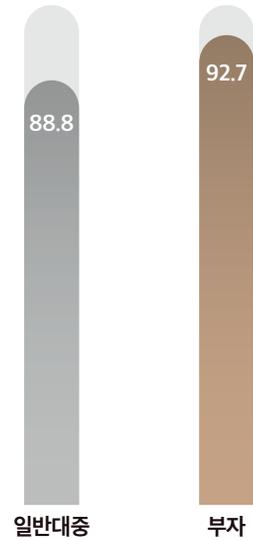
부자는 일반 대중에 비해 돈의 부족함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이 적거나 경험했다 라도 과거 잊혀진 추억으로 미화될 수 있어 돈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긍정적으로, 절실한 목표라기보다 필요한 수단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해석됐다.

“나에게 돈이란 OO이다”

순위	내용	%
1	편안함	38.5
2	꼭 필요한	16.0
3	자유	12.9
4	편리함	3.0
5	행복	2.7
6	삶의 전부	2.4
7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가치	1.7

돈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 비율

(단위 : %)



“나에게 돈이란 OO이다”

(단위 : %)

	일반 대중	부자	
	21.6	38.5	긍정, 여유
	8.8	12.9	
보다 절실	가장 중요한 것	5.3	1.5
	삶의 전부	5.0	2.4
	살아가는 원동력	1.7	0.6
부정적, 등 불평등	필요악	2.1	1.6
	고통과 구속, 골치덩이	1.8	0.5
	항상 부족한 것	1.4	0.0

부자, 돈에 더 큰 ‘책임감’ 느껴

부자가 떠올리는 돈의 의미 중, 소수 의견이지만 일반 대중에서 언급되지 않은 색다른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돈을 ‘선물’, ‘믿음’이라고 인식하며 돈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을 떠올리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 이는 일반 대중의 응답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인터뷰에서 만난 부자들은 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저에게 돈은 사명감입니다.
이 돈의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이 돈의 주인이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쓰기를
바랄까를 생각하며 지출을 결정합니다.

60대 男&女(사업가)

”
돈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무 고민 없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더 큰 의미입니다.

60대 女(주부)



happiness



소소한 행복 시인 남정림

뒤돌아보니
행복은 내 편이었더라
내가 행복의 편이 아니었지

벽돌 담장의 발등에 핀
풀꽃의 미소도
푸른 하늘의 구름이 그린
응원의 글귀도
누리지 못하고
멀고 휘황찬란한 것만 쫓아다녔지

뒤돌아보니
행복은 내 편이었더라
일상의 그늘 속에 숨어 있었고
내 발밑에서 숨을 쉬고 있었지!

오늘은
눈 뜬 소소한 행복부터
지갑 속에 빼곡히 넣어두리라
내가 행복의 편에 서 보리라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시인 나태주

HAPPINESS TO THE RICH

부자의 행복

지금껏 만나온 부자 중 상당수는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열 개를 가져도 한 개 가진 이를 탐내며 결핍을 느끼는 게 돈이라는데, 과연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행복한 걸까?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돈의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부자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돈과 행복은 비례?

부자들의 경우, 일반 대중보다 돈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그렇다면 돈이 많을수록 행복의 크기도 커지지 않을까?

행복을 노래하는 시를 보면 행복을 돈, 즉 경제적 여유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행복, 마음의 충만에 더 집중하는 편이다. '돈이 곧 행복'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싶은 것일 텐데,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결과가 있다.

'2023 World Happiness Report'*라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주관적 행복도는 조사 대상국가 137개국 중 57위, 38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35위로 하위권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지표는 OECD국가 중 상위권에 속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Which Economy did best in 2023?''**에서 확인된 경제 성적표에서 한국은 OECD국가 35개국 중 2위를 차지했던 것이다. 이를 비춰볼 때, 분명 행복은 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돈과 행복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수차례 연구로 이미 검증됐고,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서라도 막연하게나마 '돈이 많다고 마냥 행복하진 않을 거야'라고 짐작할 수 있다.

* 자료 | UN 산하 지속가능발전해결네트워크(SDS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각 국가 1,000명에게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함. 구매력 기준 GDP,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선택의 자유, 야망, 부패 부패의 6가지 변수 포함

** 자료 | Economist, 기획재정부 재인용, OECD국가 중 35개국 대상으로 평가, 근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확산 수준, GDP성장률, 고용 증가율, 추가 상승률 5가지 경제금융지표 포함

'이스털린의 역설', 돈과 행복의 모순적 현상

행복 경제학의 대가인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리처드 이스털린은 1974년 발표한 논문*을 통해 돈과 행복의 모순적 현상을 지적했다. 경제력이 높아지면 행복도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증가해 기본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는 경제력이 개선되더라도 행복이 함께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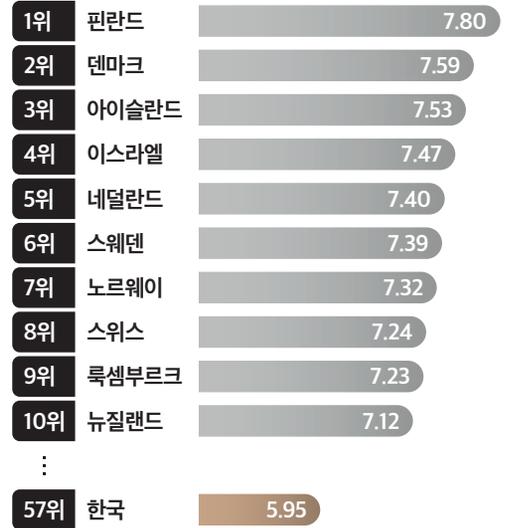
특정 시점의 횡단면을 기준으로 보면 돈과 행복의 정적(+) 상관관계가 관찰되지만, 시계열적 관점에서는 경제력 개선 후에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 모순적 현상을 '이스털린의 역설'이라 명명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행복과 경제력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사회적 비교를 통한 상대적 가치로 측정되기 때문이라는 해석, 일정 수준의 경제력이 확보된 후에는 아무리 경제력이 높아져도 행복을 높여주지는 못한다는 해석 등이 제기됐다.

* 국내에서 '지적 행복론'이라는 책으로도 출판됐다.

2023 World Happiness Report

(단위 : 점/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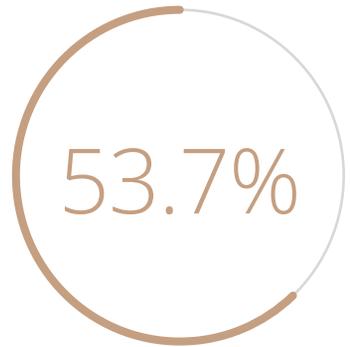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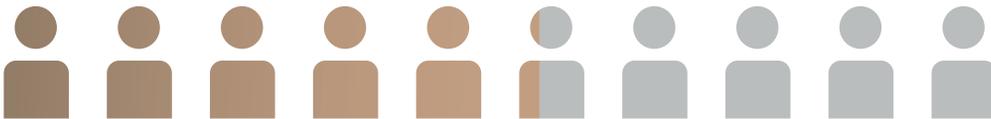




부자여,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일반 대중과 부자 모두에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 질문했다. 세계 행복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53.7%)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전반적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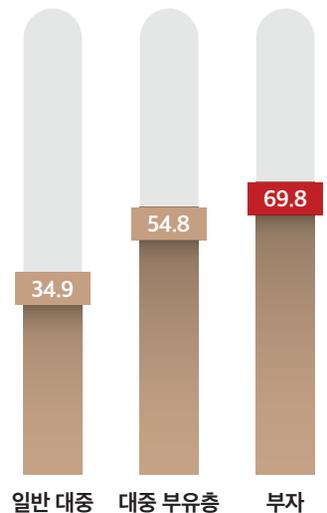
그렇다면 정말 횡단면적 관점에서 경제력과 삶의 만족도가 비례할까? 답은 ‘YES!’다. 일반 대중의 34.9%가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나 부자는 그보다 2배 높은 69.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일반 대중-부자’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

약 2배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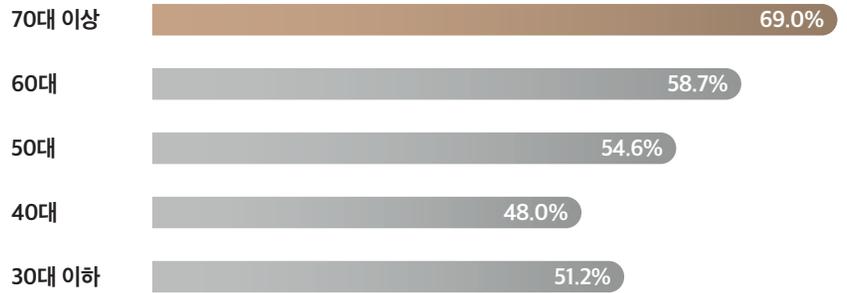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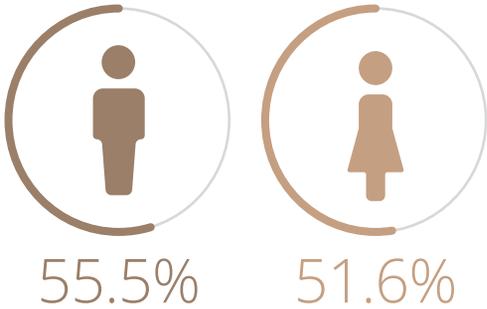
일반 대중 34.9%

부자 69.8%



성, 연령별 특징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달리 경제력 변수인 총자산, 금융자산, 소득 및 소비 수준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에서, 40대~50대 중년층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와 경제력 변수가 더 강한 상관(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됐다.

성, 연령에 따른 전반적 삶의 만족도 (단위 : Top 2, %)



삶의 만족을 정체되는 총자산 50억 원 이상

총자산을 기준으로 약 30억 원까지 삶에 만족하는 비율(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50억 원까지 다소 둔화된 상승세를 보였다. 그 이상 구간에서는 만족률이 오히려 감소되며 정체된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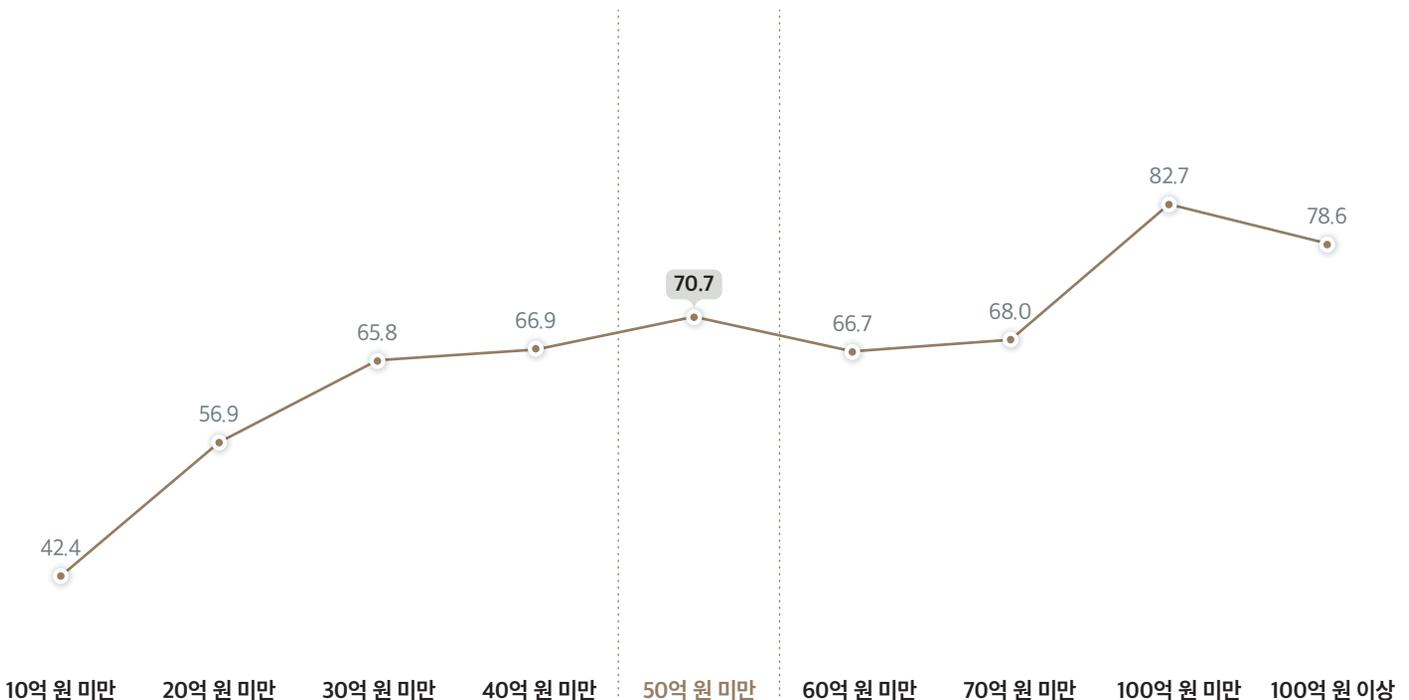
하지만, 총자산 70억 원 이상에서는 삶의 만족률이 80% 내외로 크게 높아져 그 이하 구간의 만족률(40~60%대)과 차별화된, 월등히 높은 만족률로 반등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스털린의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제기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력의 한계 점을 총자산 50억 원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총자산 100억 원에 가까운 ‘초’ 부자의 삶은 또 다른 세계일 수 있으므로 해당 가설에 새로운 관점을 제기할 수 있어 보였다.

총소득 기준으로는 4억 원, 총소비액은 2천만 원까지 삶의 만족이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정체되는 모습을 보여 자산, 소득, 소비 등 경제력과 관련된 변수들이 삶의 만족에 일정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나 소비 수준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총자산에 따른 전반적 삶의 만족도 (단위: Top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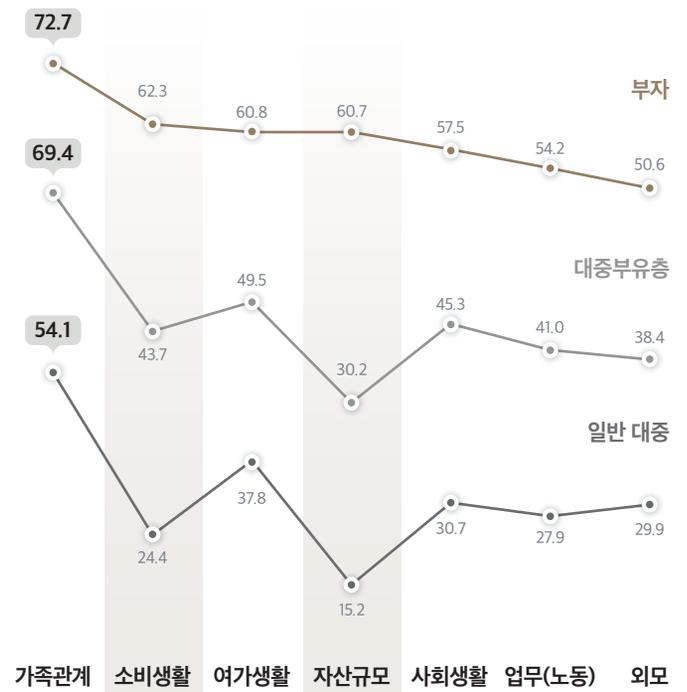
부자는 ‘가족, 여가, 일’ 등에 일반 대중보다 더 만족

삶의 여러 요소를 구분해 만족도를 질문했을 때에도 각 요인들에 대한 만족은 경제력에 따라 일관되게 높아졌다. 특히, 경제력에 따라 스스로의 자산규모 및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이 함께 높아졌고 사회생활, 일(업무)에 대한 만족률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가족관계’는 부자의 70% 이상, 일반 대중의 50% 이상이 만족해하며 가장 높은 만족률을 보였고, 경제력에 따른 만족률의 차이가 가장 적은 요소였다. ‘외모(건강)’는 부자의 절반 정도만 만족한다고 응답해 타 요소 대비 낮은 만족률을 보였으나, 그 역시 일반 대중(29.9%)보다 1.7배 높은 수준이었다.

부자들의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데 해당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해보면, 경제적 만족(부자들만 대상으로 하므로 큰 차이 없음)보다 가족 및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가 더 유효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드러났고, 외모(건강) 또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됐다.

삶의 요인별 만족도 (단위 : Top 2, %)



“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反對)요만은또패 닦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떡섭섭하오 - 시인 이상의 '거울' 중 일부

”



SELF-PORTRAIT OF THE RICH

부자의 자화상

암울한 시대상황에서, 거울을 매개로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성찰하려는 시인의 의지가 돋보이는 시다.

나는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는가?

부자가 자평하는 인성적 특성과 나를 마주하며 한번쯤 삶의 자세를 고찰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부자-일반 대중’ 공통 형용사는 ‘성실한’, ‘정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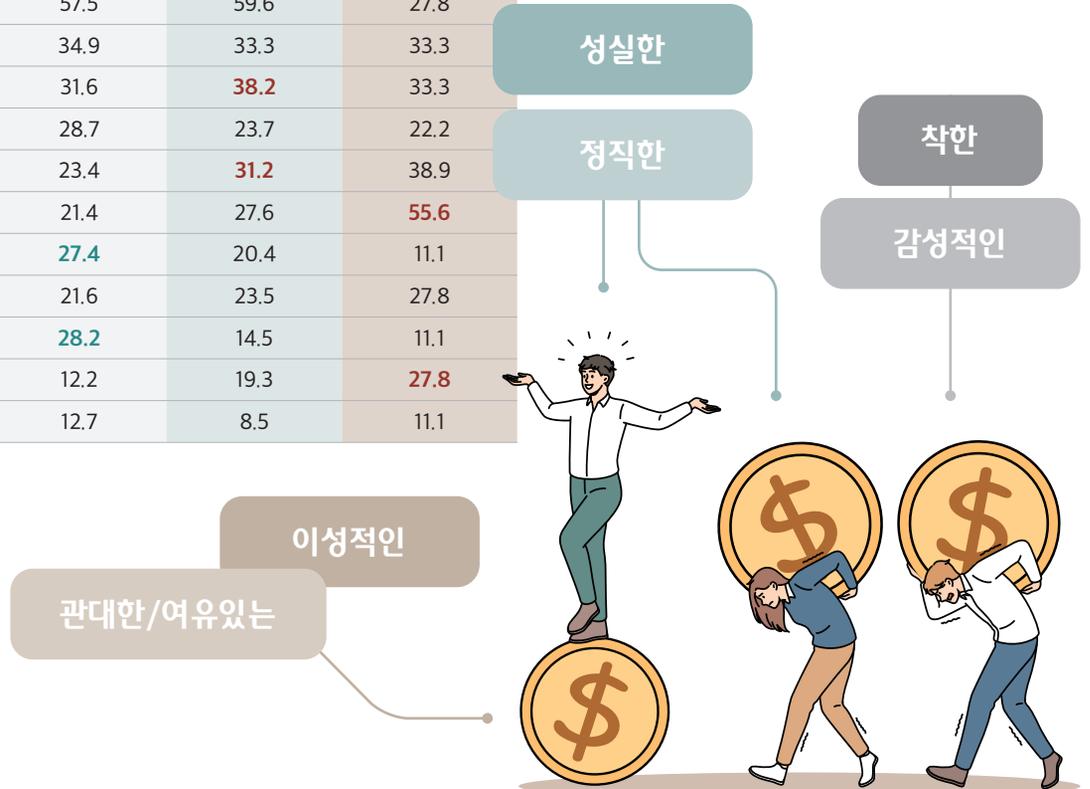
부자나 일반 대중 모두 스스로를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는 ‘성실한’이었고, ‘정직한’이 뒤를 이었다. 성실과 정직은 부자나 일반 대중 사이에 인식 차이가 크지 않아 한국인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보편적 단어가 아닐까 생각됐다.

부자가 평가하는 형용사 중에서 일반 대중보다 많이 응답된 것은 ‘이성적인’과 ‘관대한/여유있는’이었다. 반대로 ‘착한’과 ‘감성적인’ 형용사는 일반 대중에서 더 많이 응답돼 스스로를 평가하는 인식 간 차이를 보였다. MBTI가 유행하면서 성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성과 감성이 중요하게 고려됐는데, 일반 대중은 감성적, 부자는 이성적 특성과 더 밀접하다는 점은 눈여겨볼만 하다.

또한 금융자산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스스로를 ‘목표지향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똑똑한’, ‘관대한/여유있는’이 스스로를 묘사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일반 대중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소위 큰 부자들에게서 목표지향적 특성이 높게 응답됐다는 점은 그들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삶의 태도/습관 자체가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려는 특성을 지녔음을 내포했다.

일반 대중-부자가 생각하는 스스로에 대한 형용사 (단위 : %)

	일반 대중	부자	
		부자 전체	100억 원 이상
성실한	57.5	59.6	27.8
정직한	34.9	33.3	33.3
이성적인	31.6	38.2	33.3
끈기있는	28.7	23.7	22.2
관대한/여유있는	23.4	31.2	38.9
목표지향적인	21.4	27.6	55.6
감성적인	27.4	20.4	11.1
믿음직스러운	21.6	23.5	27.8
착한	28.2	14.5	11.1
똑똑한	12.2	19.3	27.8
이타적인	12.7	8.5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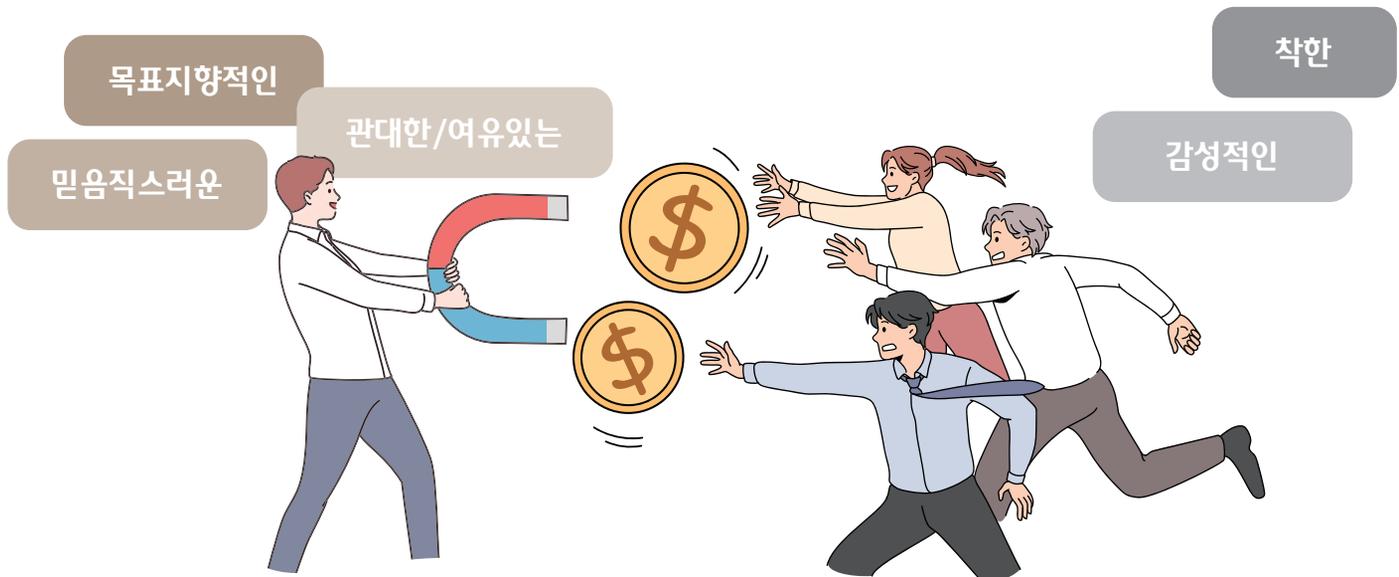


만족하는 삶은 ‘목표 지향적’, 불만족 하는 삶은 ‘감성적’

본인의 삶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스스로를 ‘목표 지향적’이고, ‘믿음직’하며, ‘관대한/여유있는’ 편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높았다. 반대로, 불만족 하는 경우에는 ‘착한’이나 ‘감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컸다. 자산 규모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자와 일반 대중의 차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스스로를 착하고 감성적이라고 평가한 경우, 타인의 시선과 환경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일 수 없음을 추측해 봤다. 즉,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기보다 이성적으로 상황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신뢰하며 목표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부, 그리고 삶의 만족과 더 높은 상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삶에 ‘만족’ VS ‘불만족’ 시 스스로에 대한 형용사 (단위: %)

	만족	불만족	차이
성실한	61.4	55.5	5.9
정직한	32.1	34.4	-2.3
이성적인	32.2	34.5	-2.3
끈기있는	27.0	26.1	0.9
관대한/여유있는	29.5	22.5	7.0
목표지향적인	29.6	19.1	10.5
감성적인	18.3	34.2	-15.9
믿음직스러운	25.2	15.3	9.9
착한	17.2	32.5	-15.3
똑똑한	18.0	12.9	5.1
이타적인	9.2	12.6	-3.4



부자의 손글씨

나만 잘하면 돼 !!



나
2마나 새롭게

Action springs not from thought
But, from a readiness for responsibility
'23, 12-13

희
망

내 행복의 원천은
나눔이다.
공희영 이태리 리안
12-01-2023

SPECIAL INTERVIEW

미래를 위한 상생(相生)의 나눔

"돈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핍니다." - 어른 김장하 -

얼마 전 다큐멘터리를 통해 소개된 김장하 선생의 돈에 대한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번 인터뷰 중 생동감 있는 기부, 나눔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본격 소개 전, 부자들의 나눔에 대한 인식·실천 현황을 먼저 살펴보자.

앞서 일반 대중과 달리 부자들이 인식하는 남다른 돈의 의미를 기억하는가? 돈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이 바로 그것이었다.
사회 고위층 인사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확인하는 척도로 부자의 기부액을 들춰보곤 한다.

기부액은 측정 시점의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증감이 나타나지만 부자의 기부액(752만 원)이 일반 대중(연 평균 72만 원)에 비해 약 10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분명 부자들에게 경제적 나눔의 실천, 책임이 더 무겁게 부여되고 부자는 자타의적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부자들은 종교단체 및 국내외 아동을 위한 기부율이 높았다. 종교를 통해 직간접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홀트아동복지회 등 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 국내외 아동을 도왔다.

코끝 찡했던 추운 겨울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무실에 들어서자 깔끔한 남친룩의 스티브김(74세)이 환한 웃음으로 반겨줬다. 인터뷰에는 스티브김을 소개한 하나은행 PB(Private Banker)도 함께 자리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스티브 김의 배우자도 바쁘게 사무실을 오가며 업무 중간에 잠깐씩 인터뷰에 참여했다.

‘꿈·희망·미래’ 청소년들의 멘토 스티브김 할아버지

아시아의 빌게이츠라는 별명을 가진 스티브김(김윤종)은 1976년 미국으로 건너가 두 번의 창업을 통해 IT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1999년, 나스닥에 상장된 자일랜(Xylan) 사(社)를 2조 원에 매각한 뒤, 2007년 영구 귀국해 2010년 사회복지법인 ‘꿈·희망·미래 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한국에서 마주하게 된 청소년들의 삶이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전했다. 입시에 시달려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에, 경제적 필요와 정서적 돌봄을 위한 장학 및 지원 사업에 열정을 쏟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주도적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며 리더십 교육을 확대했고, 현재는 전북 무주에 위치한 한 폐교를 인수해 청소년 연수 센터를 짓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꿈, 희망, 미래 story’ 자서전을 건네며 도전과 성공의 인생사를 숨가쁘게 설명하는 그의 나눔은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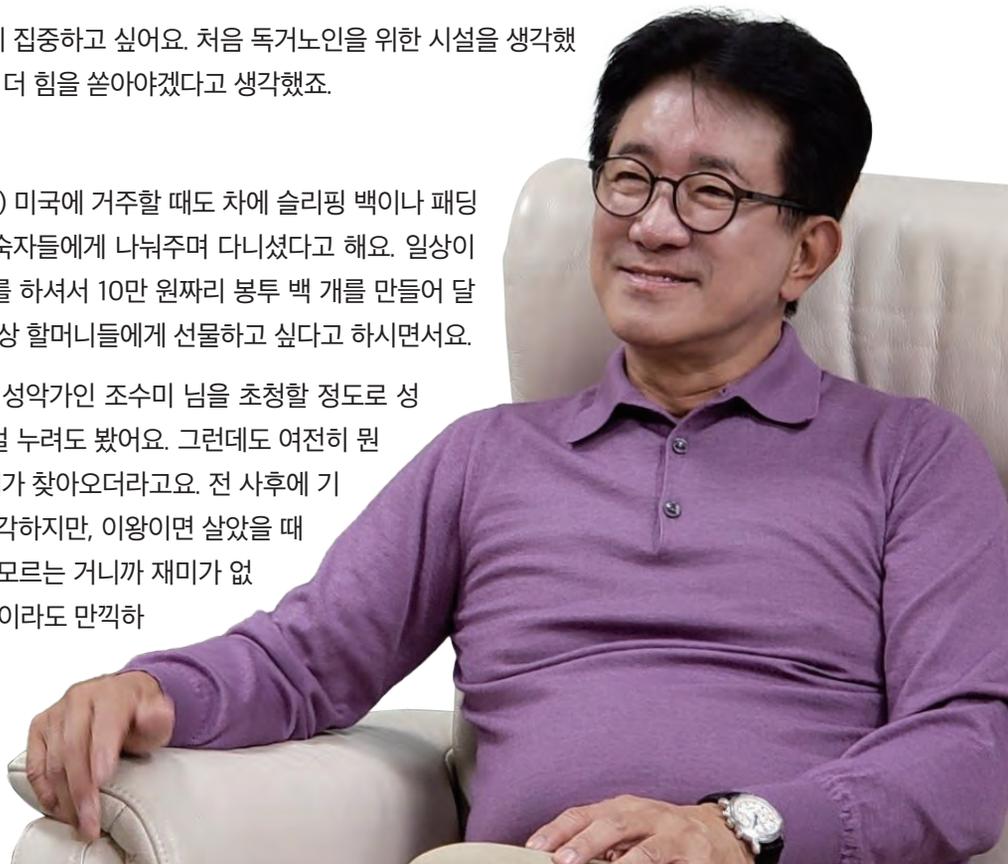
Q. 소위 ‘부자’라고 불리시는데, 돈 관리/자산 운용의 기본방침은 무엇인가요?

스티브김 돈을 버는 것보다 의미 있게 쓰는 것에 집중하고 싶어요. 처음 독거노인을 위한 시설을 생각했다가 미래를 위한 투자, 청소년을 살리는 교육에 더 힘을 쏟아야겠다고 생각했죠.

Q. 평소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은요?

PB 이걸 제가 대신 말씀 드릴게요. (스티브김이) 미국에 거주할 때도 차에 슬리핑 백이나 패딩 점퍼 수십 벌을 신고 다니시며 추위에 떠는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며 다니셨다고 해요. 일상이 나눔이신거죠. 그리고 어느 날 제계(은행) 전화를 하셔서 10만 원짜리 봉투 백 개를 만들어 달라고 하신 적도 있어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노점상 할머니들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스티브김 미국에서 가든 파티를 열어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님을 초청할 정도로 성공도 해봤고, 돈과 시간에 대한 제약 없이 많은걸 누려도 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고 어느 순간 행복하지 않은 때가 찾아오더라고요. 전 사후에 기부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왕이면 살았을 때 다 쓰고 가고 싶어요. 사후에 기부하는 건 제가 모르는 거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나누면서 누리는 이 행복을 사는 동안만이라도 만끽하고 싶습니다.



Q. 베풀다 보면 혹시 상대가 호의를 당연히 여기거나 나눔이 내 뜻과 다르게 쓰여 속상하거나 후회스러운 경험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요?

스티브김 그래서 누군가에게 안 맡기잖아요. 장학 사업을 할 때도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직접 인터뷰를 해 도움 줄 부분을 찾고,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끝까지 지켜봐요. 장학 사업의 연장선으로 청소년 리더십 센터를 운영할 때도 이 사람(부인)이 직접 설립 방향을 잡고 기획해가며 그들에게 도움되는 방법을 찾거든요. 내 나눔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직접 챙기며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주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그 때, 화장기가 거의 없는 모습에 비싸 보이지 않은 경량 패딩을 입은 재단 이사장(부인)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부인 회장님(남편)은 판단과 결정이 무척 빨라요. 사업 계획을 듣고,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 추진력은 놀라울 정도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인데 결정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년이 넘게 걸릴 일을 3개월 만에 실현하는 것을 보면 정말 거침이 없으세요. 그리고 정말 신나 하시거든요.

스티브김 단순히 기부만 하면 또 어느 순간 행복의 한계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리더십 센터를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청소년을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줘요. 아이들 모습이 연수 후에는 180도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에 쓸모 있는 인재를 배출했다', '우리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여겨져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나눔이 곧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것 같아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Q. 베푸시기만 하고 본인에게 아끼진 않는지요?

스티브김 그럴 리가요. '내가 스티브야'하면서 뽐내는 것도 무척 좋아해요. 남들 부러워하는 집에 살며 화려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부인)은 아닌가 봐, 내가 명품백 하나 마음대로 고르라고 했는데 결국 싼 걸 집더라고.

부인 저도 지인이 명품백을 들고 나오면 '정말 잘 어울린다, 참 예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제가 갖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남에게 베풀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 제겐 그게 더 좋고 아깝지 않은 지출이에요.

Q. 부자의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티브김 '책임감'이죠! 선순환을 위한 스스로의 지향점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느끼는 행복에 그치지 않으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나눔 기반 사업을 기획하고, 직접 발로 뛰며 만들어가는 모습이 돋보인 사례였다. 미래를 위한 기꺼운 투자,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역동적 실천은 나누는 기쁨을 배가 시키는 듯했다.

신뢰와 애정 어린 눈빛으로 멋진 동반자적 애(愛)를 보여준 부부의 모습은 함께 돈을 모으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돈을 함께 쓸 수 있어서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존경을 담아 손님 곁을 지키는 PB의 모습과 이 PB 없이는 자산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부부(손님)의 모습 또한 신뢰가 가득했다.



PART 3

LIFE & CULTURE

부자의 루틴

부자의 취미

하나은행 아트뱅크 서비스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



PB손님들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며,
운동을 좋아하고 본인관리에 철저합니다.

PB 인터뷰 중

”

부자 손님들의 특징이라면
모든 면에서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특징을
꼽을 수 있겠네요.

PB 인터뷰 중





“ 일상의 루틴이 우리를 구원한다
-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 브뤼크네르 - ”

THE DAILY ROUTINE OF THE RICH

부자의 루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지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왔는지, 또 어떻게 보낼지는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루, 한 달의 다름은 별것 아닐 수 있으나 사람마다 다르게 보내는 순간, 시간들이 쌓여 각자는 어느새 전혀 다른 인생을 마주하게 된다. 일상을 보내는 하루 습관, 시간을 대하는 자세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텐데, 부자의 루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

INTERVIEW | 부자의 루틴

부자의 일상생활 인터뷰 중 일부를 담았다. 여러 인터뷰 중, 유사한 루틴을 묶어 편집했음을 밝힌다.

아직 현직에 있는 부자들은 일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잠을 줄여서라도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건강은 평소에 챙기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 아침식사, 건강보조식품을 챙기고, 따로 시간을 내지 못하더라도 걷기와 산책 등은 빼놓지 않으려 노력했다.

또 사회생활을 위한 모임이 활발했다. 하지만, 반드시 가족, 친구 등 개인 간 공감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을 소중히 가져갔다. 특히, 은퇴 후에는 친구, 배우자 등 개인적 관계를 절대시켰다. 이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 여기는 듯 했다.

아울러 아무리 바빠도 독서, 신문읽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들은 쉬는 듯, 일상인 듯 특별하지 않은 습관을 통해 건강과 마음을 챙기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있었다.



50대 전문직 여성 B씨



B씨는 아침 6시 50분이면 기상을 한다.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도! 기도가 끝나면 2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깨운다. 명상과 아침식사, 산책 이 세 가지는 매일 지키기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자 한다.



가정과 회사일로 늘 바쁜 그녀는 어쩌다 점심 약속이 없으면 친구를 찾아가 '그냥 얼굴 보러 들렀어'라며 만난다. 예고 없는 그녀의 방문에 감동을 받는 친구를 보며 시간의 소중함을, 일상의 행복을 느끼곤 한다.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저녁 모임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보통 퇴근시간은 8시~9시여서 사실 저녁이 있는 삶을 충분히 누리지는 못한다. 다행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커서 가사 일에 시간을 쓸 필요는 없어졌다.



주말에는 골프 약속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지만, 책보는 것을 좋아해 집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편이다. 사실 많이 피곤하기도 하다. 쇼핑은 시간이 없어 아이들에게 부탁하기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하는 아이들과의 데이트는 꼭 빼놓지 않고 지키려고 한다.



60대 전문직 남성 S씨



S씨는 보통 5시 30분에 눈을 뜬다. 일어나 종이 신문을 보고 여러 생각들도 정리한다. 고요한 아침 시간만이 온전히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 일부러 일찍 일어나 스스로에게 참 좋은 시간을 선물하고 있다. 아내가 만들어주는 주스와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한다. 자전거를 탄 지는 한 4~5년이 됐는데 요새는 운동의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져 가능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려고 한다.



모임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나고 있는데, 합창부, 동창회, 개업의 모임 등 다양하다. 이제는 돈을 내야 하는 위치에 있어 빠지지 않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주말은 무조건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생각해 보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많을 것 같지 않아 개업 후 지금까지 지켜오는 루틴이 되었고, 가족과 특별한 걸 하기보다 그저 함께 커피숍도 가고 산책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곤 한다.





70대 은퇴한 K씨

 K씨는 현직에 있을 때는 무조건 새벽 4시면 기상했으나 이제는 8시 전 후, 예전보다 여유롭게 일어나는 편이다. 아침은 부인과 함께 꼭 챙겨먹는 편인데, 밥보다는 달걀, 우유, 요거트, 견과류 위주다.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하루하루가 바쁘다. 매일 활동하는 단체에도 나가야 하고, 만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여전히 사이클, 테니스, 걷기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고, 쉬는 날이면 부인과 함께 전시회나 음악회를 가고 가끔은 부부동반 골프를 치며 시간을 보낸다. 주말에는 부인과 함께 교회를 가는 것이 루틴이고, 시간이 허락하는 날이면 부인을 약속 장소에 모셔다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과가 됐다.

 현역 때 시간이 없어 함께하지 못했고, 잘해주지 못했던 시간을 이제는 만회하고 싶은 K씨다. 그는 부인과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건강히 함께 할 수 있는 것만도 행복하구나'하고 생각한다. 옆자리를 지키던 부인 또한 남편이 본인을 존중해주고 아껴준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의 원천이라며 웃음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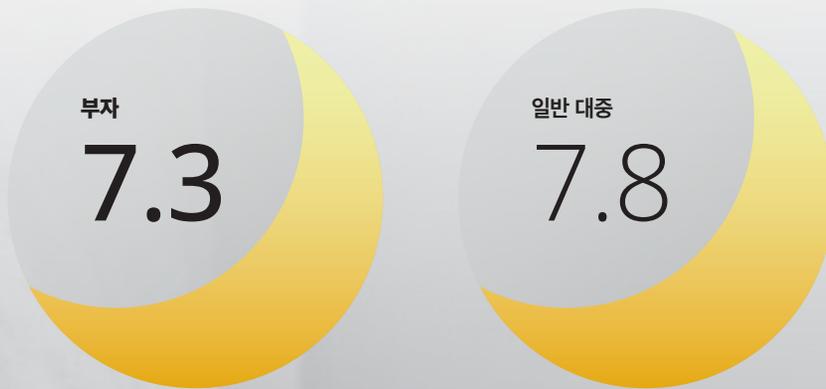


평균 수면시간 7.3시간, 일반 대중 대비 0.5시간 짧아

부자의 기상시간은 평균 6시 44분이다. 하루 평균 7.3시간을 자며 일반 대중과 비교해 0.5시간(30분) 덜 자는 편이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대략 오후 11시 30분으로 12시를 넘기지 않았다.

기상 후 출근 또는 외출을 하기 전까지의 오전 시간은 어떻게 보낼까? 부자의 60%는 아침식사를 했다. 일반 대중보다 아침식사를 챙기는 비중이 높았다. 아침식사는 밥보다 착즙한 주스나 그릭 요거트, 견과류와 같은 간단한 건강식이 대부분이었다.

부자-일반 대중 평균 수면 시간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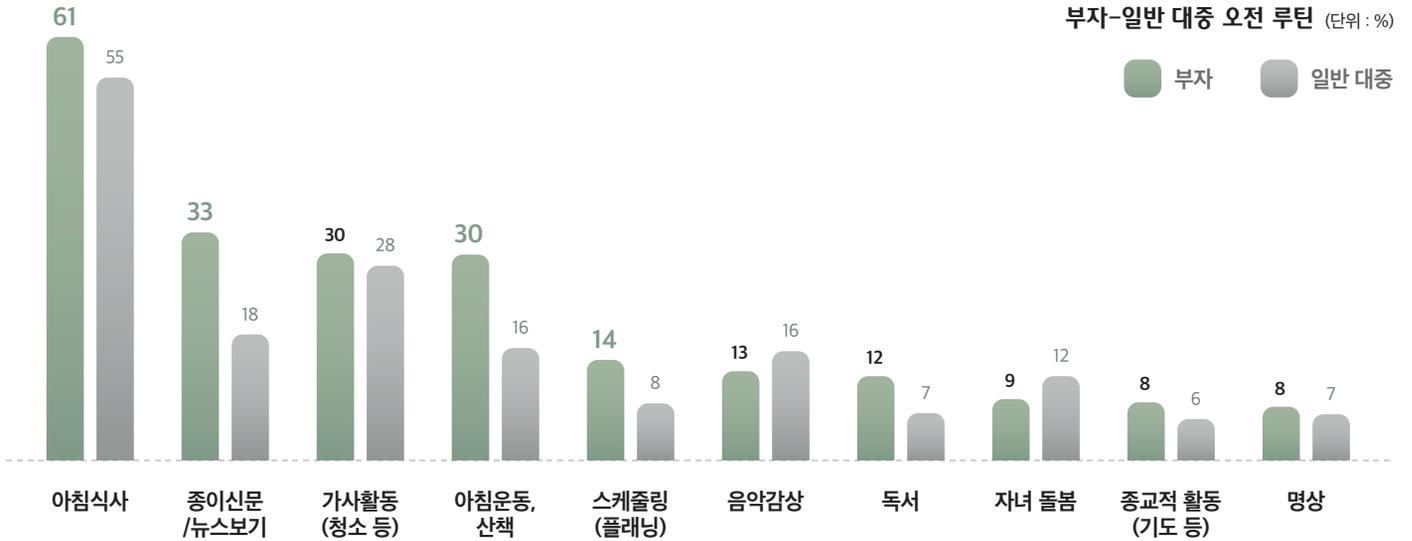


오전 루틴은? 종이신문 보기, 운동과 산책, 하루 스케줄링,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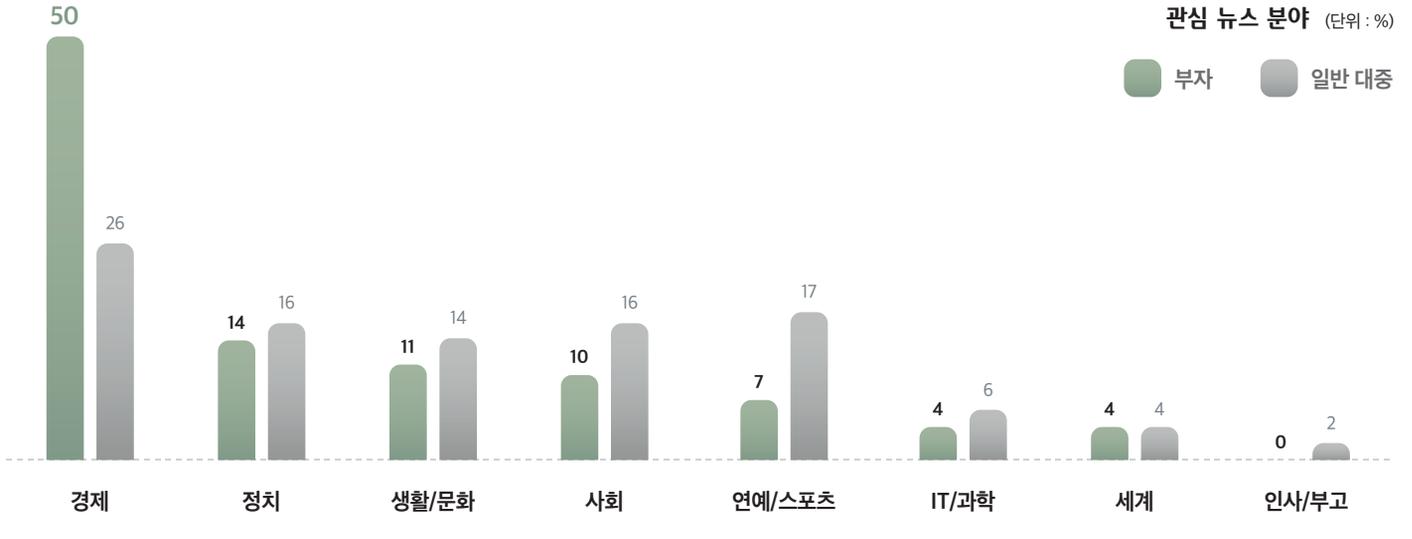
종이신문이나 뉴스 보기, 운동이나 산책, 하루 스케줄링, 독서는 부자가 일반 대중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실천하고 있는 오전 루틴이었다. 부자 3명 중 1명은 아침운동을 하거나 종이신문이나 뉴스를 보며 이른 오전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했는데 부자 중에서도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신문이나 뉴스를 많이 본다고 응답했다. 관심 있게 보는 분야는 경제 분야가 높았고, 정치, 생활문화 순이었다.



부자-일반 대중 오전 루틴 (단위: %)



관심 뉴스 분야 (단위: %)



일은 조금 적게, 가사분담은 반반

부자 중 절반은 하루 일하는 시간이 평균 5시간 이하였다. 부자 5명 중 1명은 기업경영자나 자영업자로 비교적 시간 운용에 자유도가 높은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것으로 해석됐다. 직업별로 보면 더욱 분명해졌다. 자영업자와 기업경영자의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의약계, 법조계 전문직의 노동시간은 8시간 초과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해 상대적으로 더 오래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자 가구에서 가사일을 분담하는 비중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반반에 가까웠다. 이는 일반 가구의 가사 분담이 본인 7 배우자 3으로 응답한 것에 비해 더 공평하게 분담된다고 인식하는 결과였다. 하지만, 자산이 많을수록 가사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외부 도움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본인/배우자의 참여가 공평하게 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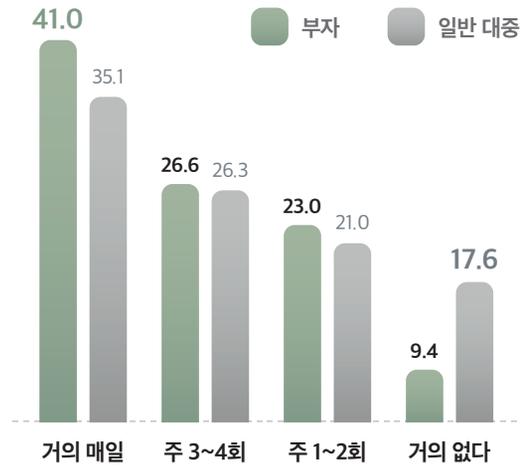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충분히

요즘에는 집안에서도 가족간에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한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하루 동안 부(父)-자녀간 대화 시간이 30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대화가 전혀 없다는 응답도 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는 조금 더 많은 시간 대화를 하지만, 자녀와의 소통시간은 2017년보다도 더 줄었다.*

‘일주일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를 조사한 결과, 부자 10명 중 7명은 ‘주 3회 이상’이라고 응답했고,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도 40%로 절반에 가까웠다. 일반 가구는 ‘거의 없다’는 비중이 20%에 가까운 수준인 것과 비교해 부자의 경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출처 | 가족 간 대화시간,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주 평균 가족 식사 횟수 (단위 : %)



바빠서, 공통 관심사가 없어서 등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이유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핑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래서 피하다 보면 정말 어색해지는 사이가 또 가족이기도 하다.

인터뷰에서 확인했듯 부자는 개인적 관계를 소중히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사회생활을 할 원동력을 얻고 있었다.

부자의 쉬운 루틴부터 하나씩 훑내 내다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 비슷한 위치에 서게 되지 않을까?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하루의 루틴

부자들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또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책을 보지 않았다. 그들에게 독서는 일상임과 동시에 휴식이기도 했다.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 “책과 초밥”이라고 말했다. 세계인이 열광하는 IT작품들을 선보이고,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세상을 뒤흔들 때, 그는 많은 영감을 고전 독서에서 얻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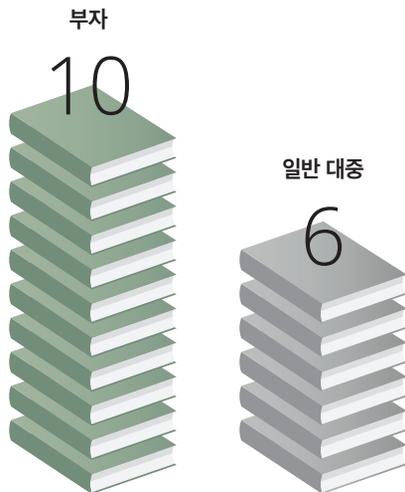
전(前) 마이크로소프트 CEO 빌 게이츠도 독서광으로 유명하다. 투자자 워렌 버핏,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다. 책에 대한 예찬은 세계적인 부호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성공의 비결을 독서로 꼽는다.

부자들은 1년에 약 10여권의 책을 읽는다. 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는 2배 수준인 20여 권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책은 인문사회분야이며, 다음은 소설, 자기계발 서적 순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반 대중의 경우, 소설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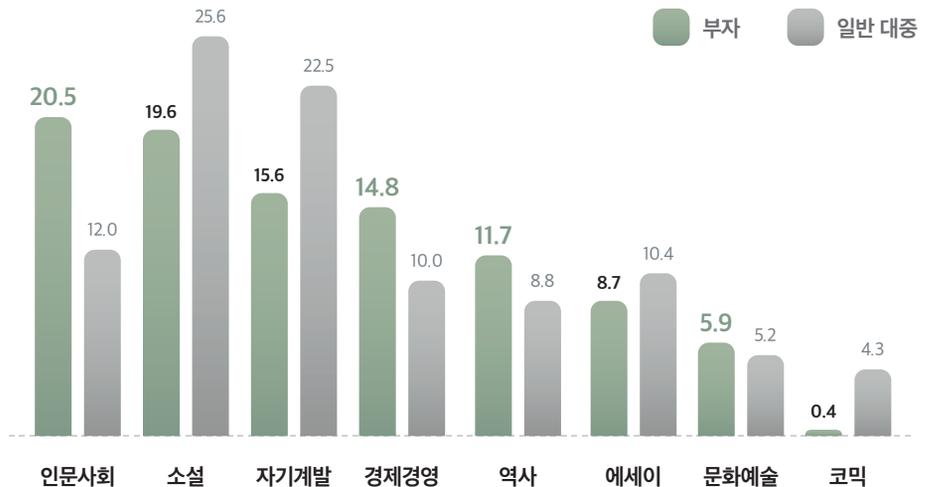
같은 책을 보고 느끼는 감동과 교훈이 일반 대중과 다른 점도 꽤 흥미로웠다. 스티브 잡스는 일반 대중이 보기에 그저 전설처럼 재미있고 스케일이 큰 모험 소설일 수 있는 ‘리어왕’과 ‘모비딕’을 경영과 리더십에 활용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만난 부자는 펄벅의 ‘대지’를 보며 부동산에 투자할 결심을 했다고도 말했다.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책을 대하는 부자의 모습은 일반 대중보다 훨씬 일상적이었고 독서를 통해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가치관을 되새기기도 했으며, 책에서 보배를 건져 올리는 자신만의 통찰력도 남달랐다. 이는 그들이 특별해서라기보다 독서를 일상처럼 실천해 온 수많은 경험과 훈련에서 얻어진 결과물이었을 것이다.

연간 독서량 (단위 : 권)



선호 서적 분야(1순위) (단위 : %)



이 세상에 값싸고 좋은 건 없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건 바로 책! 책에는 삼라만상이 들어있습니다.
책은 반드시 봐야 해요.

70대 女(기업인)

책을 일부러 집안 곳곳 어디에서든
손에 닿을 수 있도록 아무 곳이나 쌓아둡니다.
책을 보는 것은 일상이에요.

50대 女(전문직)

버락 오바마나 빌 게이츠가 추천했던
‘모스크바의 신사’를 추천합니다.
러시아의 어두웠던 시대 속에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깨어있는 지성으로 우아하게 헤쳐나가는
신사의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많은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50대 女(전문직)

어떤 책이든 책에서는 정말 많은걸 얻을 수 있어요.
저는 펄벅의 ‘대지’를 보며
아! 땅의 힘이 대단하구나, 땅은 배신하지 않는구나.
돈이 생기면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자산을 많이 불렸습니다.

70대 女(기업인)

MORE TO READ



더 읽을거리 | 부자들의 추천 도서는?

빌 게이츠는 현재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 게이츠 노트(Gate Notes)에 그가 읽은 책들을 소개하며 대중들과 소통 중이다. 그는 매년 약 50권의 책을 읽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고, 온라인 경제 강의(티모시 테일러의 경제학 시리즈)와 즐겨 듣는 음원 재생 목록을 함께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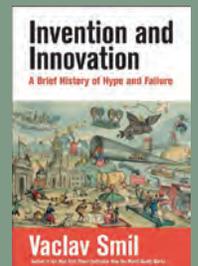
지난해 그가 읽은 책 중, 최고의 책으로 'Not the end of the world'(세상 종말이 아닌)를 추천했다. 옥스퍼드대학 소속 수석 연구원이자 데이터 과학자인 한나 리치(Hannah Ritchie)가 쓴 이 책은 기후위기에 대한 낙관적 관점을 제시하며, 기후변화와 전쟁에서 세계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산림 벌채, 탄소 배출, 대기오염, 기후 변화, 식량, 생물 다양성 손실, 해양 플라스틱 등 다양한 환경 문제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흥미로운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한 주장을 제시한다.

캐나다 매니토바대학교 환경과학 명예교수인 바츨라프 스밀의 'Invention and Innovation(발명과 혁신)'도 추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벤션'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출판됐다. 스밀은 빌 게이츠가 가장 신뢰하는 사상가로 그의 책 44권을 모두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책은 인류의 발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고 있다. 역사 전반에 걸친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데 세상을 지배한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로 판명된 것들까지 언급하며 발명의 의의와 영향을 설명한다. 핵융합을 통한 에너지 생산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혁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구와 인류를 위한 발명의 미래를 전망한다.



책 'Not the end of the world' 표지
책 'Invention and Innovation'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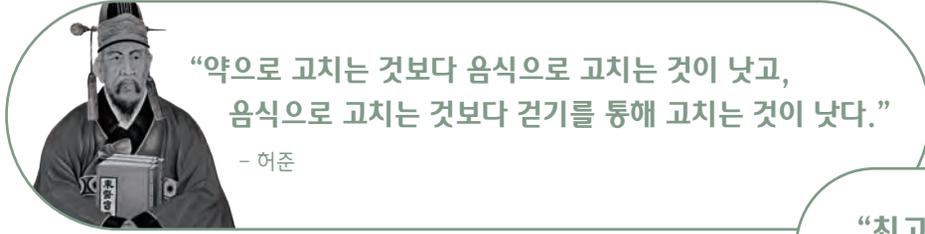




THE HOBBIES OF THE RICH

부자의 취미

취미는 개인의 관심사를 반영하기도 하고 트렌드를 따르기도 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취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즐기는 이른바 '취미 부자'가 늘면서
'하비슈머(HobbySumer)'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흔히, 부자가 즐기는 취미라고 하면 골프를 먼저 떠올릴 텐데, 과연 부자들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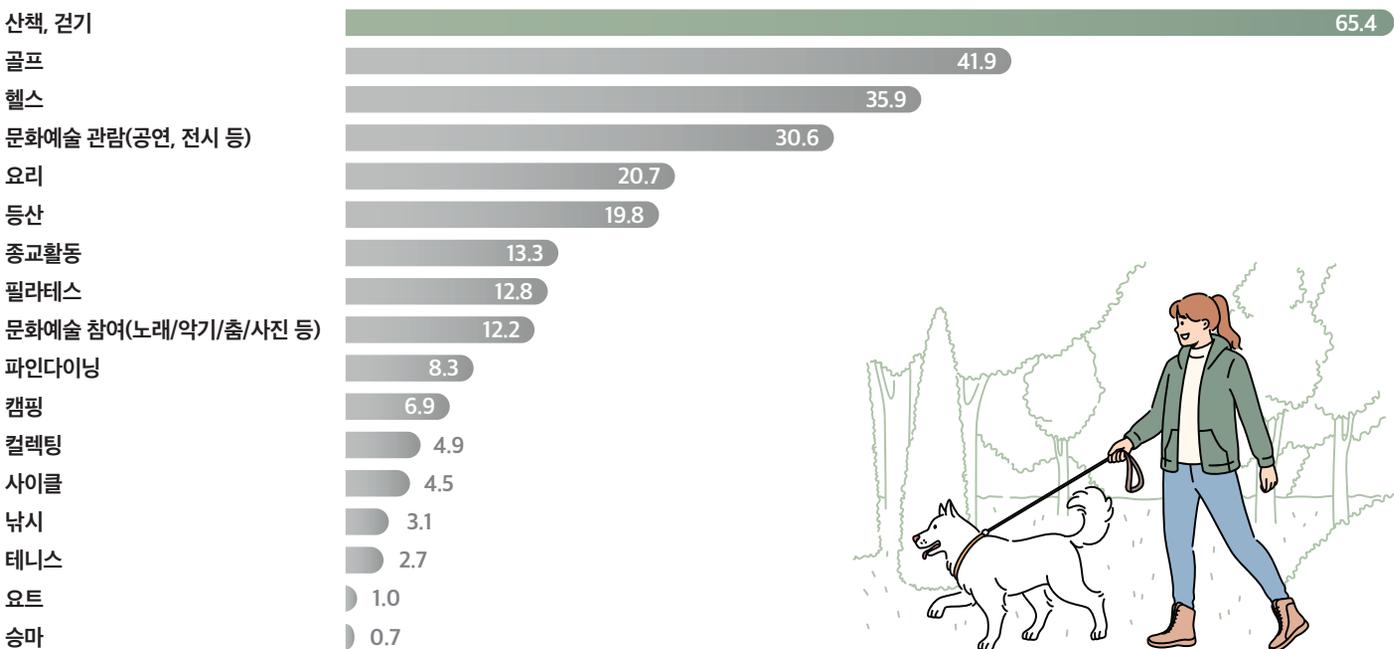


일상 속 몸과 마음챙김! 산책과 걷기가 부자의 취미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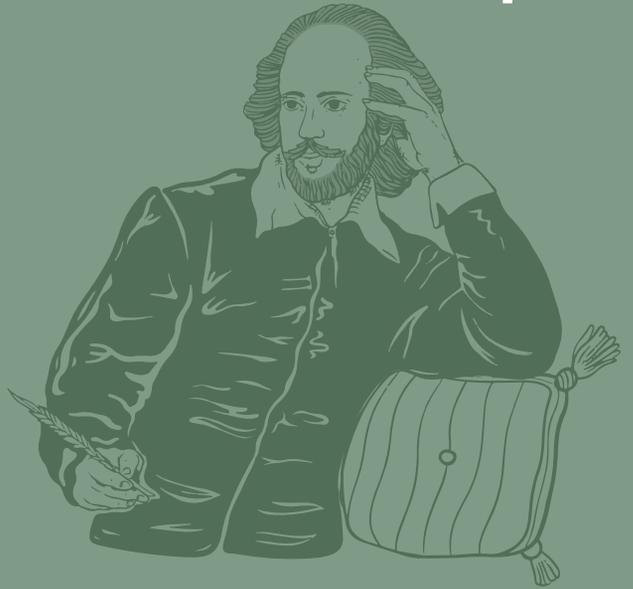
부자의 취미를 조사한 결과, 산책과 걷기가 1위(65%), 골프가 2위(42%), 헬스(36%)가 3위로 나타났다. 즉,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활동을 가장 많이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에서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산관리만큼이나 건강관리에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설문으로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였다.

과거 철학자들은 걸으면서 사유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고찰했다고 전해진다.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가 매일 같은 시간에 어김없이 산책을 다녀 이웃사람들이 그를 보며 시간을 가늠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산책은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비우거나 채우는데도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다. 특별히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일부러 큰 힘을 쓰지 않아도,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곧 산책이다. 다가오는 따스한 봄날, 집 근처 공원이나 둘레길을 찾아 천천히 걸어보는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부자의 취미 (단위 : %)



MORE TO READ



더 읽을거리 |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년~1804년)의 산책

칸트는 어릴 적 독실한 경건주의 신자인 부모의 영향으로 도덕적 수양을 쌓고 예의범절을 익히며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도록 교육 받았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던 집안 사정 상 생활비를 벌며 늦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쉽게 교수직을 얻지 못해 무려 15년 간 철학, 수학, 물리학, 지리학, 역사, 광물학 등 전공과 무관한 수업을 강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엄청난 독서와 상상력으로 세계를 꿰뚫어보고 있었던 그의 강의, 특히 지리학 강의는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인기가 있었다.

칸트의 시대는 과학의 빠른 발전을 기반으로 신이 아닌 인간의 이성인 세계를 밝힐 것이라는 합리론이 주목 받던 시절이다. 그런데 과학이 근거하는 이성과 경험이 확실치 않다는 회의론이 함께 대두되면서 철학적 근간의 혼란을 겪기도 했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이라는 책을 출판하며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신의 영역과 인간의 경험으로 발전시킬 과학의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그 혼란을 정리하고자 했다.

칸트는 46세가 되던 해, '성실함'과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아 교수직을 얻었는데, 그의 규칙적 생활은 평생 단 두 번 어겨질 정도로 자연 법칙에 가까웠다고 한다. 새벽 5시 기상 후, 홍차 두 잔과 파

이프 담배를 피운 후 강의 준비를 한다. 강의 후, 집에 돌아와 집필을 하고, 오후 1시가 되면 손님들과 점심을 한 뒤, 3시 반이 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을 나간다. 그의 철학은 대부분 산책 중 깊은 영감으로 답을 찾았다. 칸트는 산책이 건강을 넘어 정신을 즐겁게 하고 영혼에 휴식을 제공한다고 믿었다.

서울 서초구 양재천, 방치됐던 작은 섬에 칸트를 테마로 한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사색의 문 이라고 이름 지어진 철제로 만들어진 문을 들어서면 산책로가 시작되는데, "칸트의 산책길" 입구에는 자연과 사색을 통해 나, 너, 우리를 돌아보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라고 새겨져 있다. 그 문을 지나면 벤치에 앉아있는 칸트 동상 만날 수 있다. 벤치 좌우에는 칸트가 남긴 명언이 새겨져 있다.

“행복의 원칙은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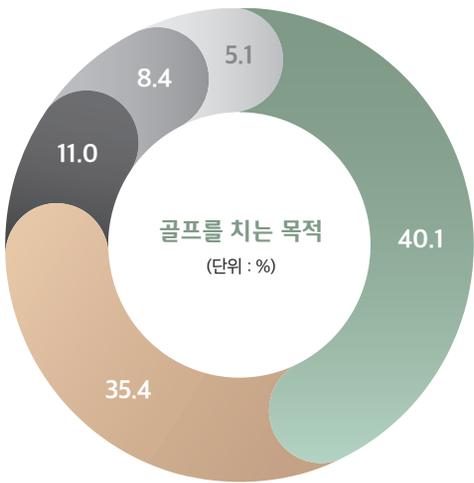
©서초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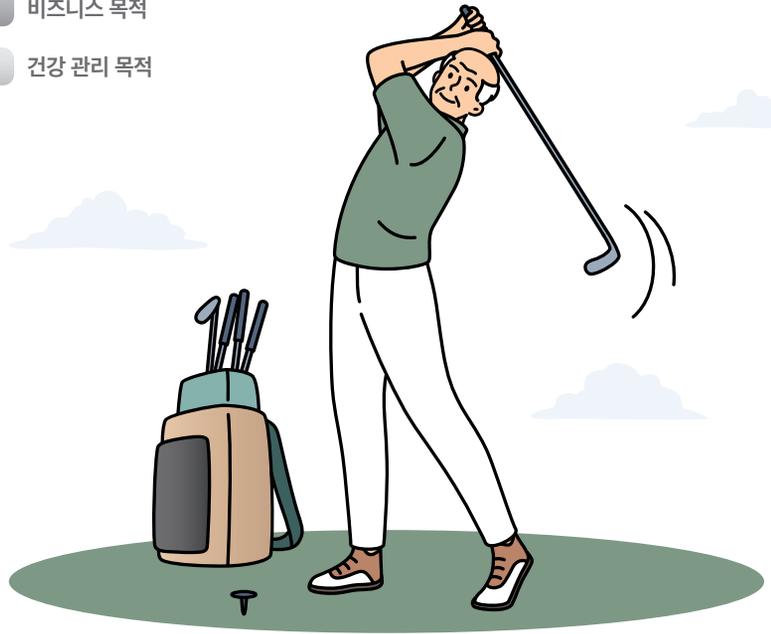
골프로 친목 다지기

산책과 걷기 다음으로 부자가 즐겨 하는 취미는 골프였다. 골프를 치는 목적을 보면, 회사동료, 친구, 가족들과의 친목 도모를 위해 골프를 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순수하게 취미로 즐긴다는 응답도 35%였고, 그 다음 비즈니스 목적이 높지 않은 비중으로 뒤를 이었다. 자산 규모로 보면, 금융자산 1억 원 미만을 보유한 경우 비즈니스 목적이 더 많았고, 부자 중에서는 100억 원 이상 자산이 많은 경우 비즈니스 목적이 더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부자들의 월 평균 골프 플레이 횟수는 3.4회이고, 1회 평균 3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소비한다는 응답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골프 플레이 횟수는 자산규모가 클수록 더 잦았지만 1회 평균 소비액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회사동료/친구들과의 친목 도모
- 취미생활
- 가족 간 오락 및 친목 도모
- 비즈니스 목적
- 건강 관리 목적



건강 다음은 문화생활 즐기

산책, 골프, 헬스 등 건강관리를 제외하면 문화예술 관람(31%)이 부자들이 즐겨 하는 취미생활 1순위로 확인된다. 부자들은 미술전시, 클래식,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건강관리, 문화예술 생활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 취미생활은 요리인데, 슈퍼리치의 경우 요리보다 컬렉팅과 파인다이닝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컬렉팅과 파인다이닝 모두 많은 경험과 안목 그리고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취미생활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MORE TO READ



| 더 읽을거리 |

경기 침체 여파로 기업 수요 위축, 수급 여건과 희소 가치는 확대 상저하고(上低下高) 또는 시기별 등락 있어도 강보합 마감 예상 매매 전략, 시점별 분별 필요... 하반기, 투자 수요 살아날 전망

미리 보는 2024년 회원권 시장 향후 전망

2024년 회원권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증대된 회원권의 희소 가치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악재들로 인해 변동성이 강화될 조짐이다. 특히, 무엇보다 실질적인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굵직한 변수들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워졌다. 이에 따라 자산 시장을 옥죄어 왔던 물가와 금리 인상에 대한 큰 악재를 해소하는 교차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실수요와 투자 수요의 움직임들이 활발해지면서 시장이 한층 유동적인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제공 | 에이스회원권

우선, 시장 매매자별 동향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개인의 시장 참여 형태보다는 기업들의 매매 동향에 관심이 쏠릴 듯하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법인들은 일정 시점별로 매매가 다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원인은 그들의 수익지표가 낮아졌기 때문이며 이미 주요 대기업들과 증권 기업들도 비상 경영에 들어가는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또한, 2023년 연말부터 카카오그룹의 골프회원권 매각 논란으로 주요 법인들은 회원권 매매에 이전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시공능력 기준 16위였던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새해부터 건설사들과 일부 관련 금융사들의 부실채권 옥석가리기가 시작되면서 시장에도 적극적 투자 형태의 수요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PF논란, 건설사 모체나 PF관련 골프장... 회원권 발행 늘릴 듯

또 시장의 수급변화도 새롭게 부각될 수 있다. 일례로 태영그룹의 사례처럼, 다른 골프장들도 건설사 모체이거나 PF사업과 관련 있는 곳들이 추가로 부각될 것인데 이들도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이들은 물론이고 호황을 누리던 골프장들도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동안 중단해왔던 신규 회원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는 일반 회원권 외에도 그간 꺼려왔던 무기명 회원권 분양을 점진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근래에 시세 상승을 주도하던 초고가 종목들이 2023년처럼 급등세를 보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이는 향후 시장을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결국, 초고가 종목들과 법인들이 주도하는 강세장보다는 시장 전반에서는 중·저가 종목군에 개인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치열한 눈치작전이 전개될 수 있고 시장은 보합이나 약보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게 되는 셈이다.

다만, 무기명 회원권 물량이 시장에 증가하게 되면 자금 여력에 따라, 법인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해당 회원권 매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부 종목들의 낙폭이 크더라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기에 종목별 옥석 가리기도 유효할 듯하다.

매매 전략, 시점별 분별 필요... 하반기, 투자 수요 살아날 전망

그리고 주요 기점에서 2/4분기에는 실질적인 경기흐름과 자산 시장의 자생력을 보다 강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해야 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선거철이 지나면서 정치적 이슈 외에 아마도 각자도생의 노선이 자리 잡게 된다면 오히려 자산 시장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자산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금리인하 요건이 점차 갖춰진다면, 오히려 이때는 저점 매수세를 노려 볼만한 시점이 될 수도 있을 듯하다.

물론, 시기상으로는 3/4분기에는 흑서기와 휴가 시즌을 거치며 지루한 탐색전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시기는 지루한 박스권이나 시세가 강보합 수준에 머무르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매매 시기를 전후로 선별하는 요령도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상반기에 종목별 편차와 매물들의 시세조정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그 상승폭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4/4분기쯤에는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연말로 갈수록 시세 상승폭을 늘리는 형태로 진입하는 시나리오가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다.

한편, 2024년 에이스회원권지수(ACEPI)*는 단기적으로는 1300P를 두고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며 하락 시 저항선으로는 1250P 그리고 추세적 상승구간에 돌입할 경우에는 1350P를 뚫고 1400P를 상단 고점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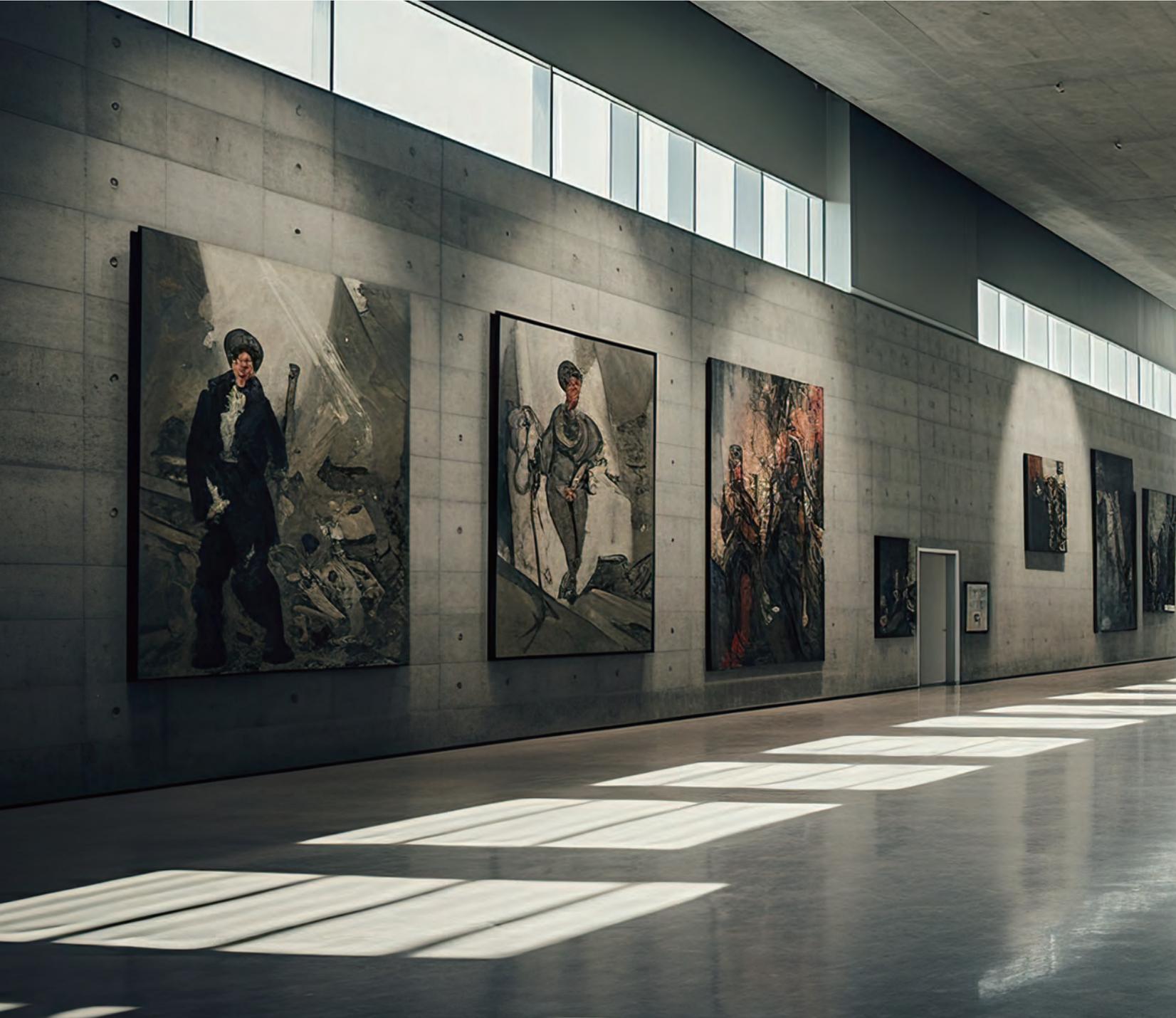


* 에이스회원권지수(ACEPI)란? 2005년 1월 1일의 회원권 시세를 기준(1000P)으로 해 매일의 호가 등락을 표시한 회원권 시세 표준화 지수다.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회원권 지수를 2005년 1월 1일 당시, 회원권 시장에서 거래가가 형성된 116개 골프장 중 대표격인 173 종목의 실제 호가를 적용/분류해 최대한 시장 현황을 일일 반영해 산출한 종합 지수다.

SPECIAL INTERVIEW

건강관리 다음은? 문화예술 즐기기!

컬렉팅에 관심 있는 ‘슈퍼리치’



부자들의 컬렉팅은 곧 재테크와도 이어져 세간의 관심을 받곤 한다. 지난해 웰스 리포트에서도 예술품, 위스키와 같은 부자들의 컬렉션이 언급됐으며, 그 중 예술(미술) 영역은 부자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까지 저변이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기관에서는 아트뱅킹을 특화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왜 ‘부자의 예술’에 주목하는지, 예술이 어떻게 자본과 연결되는지, 하나은행 아레테큐브를 찾아가 그 이유를 들어봤다.



“안목과 취향이 부의 원천! 컬렉터를 위한, 컬렉터에 의한”

하나은행 아트뱅크, 아레테큐브를 찾아서

HANA BANK ARETE CUBE



Q. ‘아레테큐브’는 다른 PB센터와 무엇이 다른가?

하나은행의 골드클럽이자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특별한 고객을 위한 채널(영업점)이다. 아트 관련 특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아니고, 일반적 PB서비스 업무를 모두 제공한다고 보면 된다. 다만, 같은 금융자산을 관리하더라도 콘텐츠(예술)와 연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곳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맞춤 제공된다. 문화 예술(아트)에 관심 있는 손님을 모으기도 하고 잠재 손님들의 관심을 유발하기도 하면서 향후 시장이 정착됐을 때, 실수요 손님으로 연결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Q. 이곳에 방문하시는 손님들만의 특징이 있는가?

전통 부자가 주된 손님 층이다. 미술품은 통상 억대는 되어야 미술품 자산으로서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에 평균 보유자산 규모가 클 수 밖에 없고, 그런 미술품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부유하다는 의미다. 예술에 관심 있는 부자들은 보통 가문의 품격을 중시하는, 또는 자산의 품격을 배우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

◇ 사진 = 아레테큐브 내부 모습

Q. 들어오면서 보니 간판도 없고 그 어디에도 은행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없다. 손님들은 어떻게 이곳을 알고 방문하는 것인가?

손님은 주로 MGM(Members Get Members), 즉 소개를 통해 방문한다. 은행처럼 보이지 않고, 특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손님이 오면 직접 내려가 이곳(센터)까지 에스코트한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현재 이곳은 서울옥션과 같은 전문 기관, 갤러리 등과 제휴를 맺어 손님들의 미술 관련 니즈에 대응한다. 아레테큐브의 모토는 '자산에 격을 더하다'이다. 가문의 부(富)에 지적 우월함, 품격을 더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모토 하에 손님들에게 문화 예술관련 강의나 관련 시장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미술작품 구매의향을 가진 손님을 위해 작품을 연결해 드리는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술품 거래를 위해 컬렉터로서 자격을 검증 받아야 할 필요도 있는데, 장차 이곳을 거래하는 것이 곧 시장에서 인정 받는 자격이 되도록 힘쓰고 있다. 유명 작가나 그림, 오페라, 인문학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세미나도 정기/비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손님들과 관계를 다진다.

예술품 관련 금융 상품은? 관련 시장의 성숙이 우선

Q. 예술품과 관련된 금융 상품이 있다면?

미술품은 아직 부동산처럼 안정화된, 보편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미술품 시장이 성숙해지고 자산으로서 보편성을 가지게 되면 관련 상품 시장도 활발해 질 것이라고 본다. 예술품과 관련한 대출상품도 사실 예술작품이 담보로 인정받기 위해선 그 가치가 어마어마해야 하고, 누구나 다 아는 작품이어야 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인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관련 시장의 성숙이 우선일 것 같다.

Q. 최근 대중들에게도 투자자산으로서 미술품이 각광 받고 있는데, 미술품 시장이 궁금하다.

크게 1차 시장(primary market)과 2차 시장(secondary market)으로 구분한다. 갤러리(화랑)들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시장이 1차 시장, 이미 거래된 작품이 다른 소비자에게 거래되는 경매 등이 2차 시장에 해당한다.

1차 시장에서는 갤러리들마다 전속 작가들이 있고, 소속 갤러리를 통해 작가와 합의된 가격으로 작품이 판매된다. 2차 시장은 수요

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게 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2차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도 유리할 수 있다. 경쟁이 심하지 않으면 기준가 근처에서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보는 눈이 우선 갖춰져야 할 것이다. 경쟁이 심하지 않다는 의미는 반대로 유동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미술품 투자는 내 취향을 반영해서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수준에서,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여유 범위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목과 취향 중요

Q. 지금까지 부자와 예술의 관계를 어렵짐작해볼 수 있었다. 부자와 예술의 관계를 덧붙여 설명한다면?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가 안목과 취향이라고 생각한다. 안목과 취향은 시간과 돈을 할애해야만 키워지는 것이고, 집안의 환경이나 가풍, 즉 DNA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안목과 취향은 다시 돈을 벌게 해준다. 미술품은 특히 그 안목과 취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장이다. 컬렉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MORE TO READ



| 더 읽을거리 |

미술 '시장' 형성 전, 예술가들은 귀족 '후원'으로 활동

예술과 돈의 관계, 미술 시장의 탄생과 그림값의 비밀

“미술 활동의 기반은 ‘후원’, 제작된 미술품은 후원자 소유”

미술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미술 활동의 기반은 '후원'이었다. 작가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후원자의 주문에 따라 미술품을 제작했다. 후원자는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미술품 제작에 영향력을 행사 했고, 제작된 미술품은 온전히 후원자의 소유가 되었다.

근대 이전 미술은 주로 신화와 종교, 역사 등 초월적 주제를 다루었다. 후원자들은 대개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유한계급이었고, 이들은 일상적인 주제보다 초월적 주제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월적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문학적 교양과 지식이 필요했기에 미술은 '고상한 취미'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 고상한 취미는 왕실과 귀족이 가문의 전통과 현재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의도와도 부합했다.

근대에 접어들며 중산층의 등장과 함께 미술 '시장'이 형성

“자본시장 발달과 함께 시장제도로 옮겨간 미술활동”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자본시장의 발달과 함께 중산층이 등장했다. 이들은 작가를 후원할 만큼의 부를 가지진 못했지만 작품의 주요 소비자로 자리매김하며 미술 활동의 기반을 후원에서 시장제도로 옮겨갔다. 이에 따라 근대의 미술가들은 후원자의 취향에 따라 미술품을 제작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관에 따라 작품을 제작하는 자유로운 생산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귀족 계급의 후원자와 작가간 직접적이고 개인적 관계가 아닌, 중산층과 불특정 다수의 작가간의 관계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 두 집단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필요했고 이로 인해 미술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미술상과 경매회사, 미술관, 전시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매개체들은 소비자에게는 공급자의 역할을 했고, 작가에게는 소비자의 취향을 전달하며 미술시장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미술품의 가격은 아트딜러의 손에서 결정

미술시장은 완성된 작품이 시장에서 처음 거래되는 1차 시장과 거래됐던 작품이 재판매 되는 2차 시장으로 구분되며 1차 시장에는 작가, 아트딜러, 컬렉터 이렇게 세 플레이어가 존재한다. 아트딜러는 화상(畫商)과 같은 말로 유망한 작가들을 알아보고 이들을 세상에 선보이며 동반자가 되어준다. 아트딜러는 곧 시장에 작품을 유통하는 인적채널인 것이다. 인상파 화가의 작품을 일찍이 알아본 폴 뒤랑 뤼엘, 피카소와 세잔을 길러낸 앙브루아즈 볼라르 그리고 탁월한 안목으로 미국 작가를 후원한 거트루드 밴더빌트 휘트니 등이 아트딜러로 널리 알려져있다.

아트딜러와 작가의 수익분배 원칙은 통상적으로 5:5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 기준이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아트딜러 래리 가고시안은 전 세계의 22개의 지점을 두고 100여 명의 유명 소속작가를 두고 연간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존 최고가 작품의 작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내 작가는 김환기

그림값이란 거래되는 미술품 중에서도 공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모나리자와 같은 작품은 거래될 수 없으니 가격

을 따질 수 없고 개인간 거래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알 수 없다.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다. 2017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 달러(약 4,500억 원)에 낙찰된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이다. 국내 작가의 작품 중 최고가는 김환기의 작품 '우주'로 132억 원에 낙찰된 바 있다.

성장 중인 한국 미술시장

미술품 투자에 관심 있다면 화랑, 아트페어, 경매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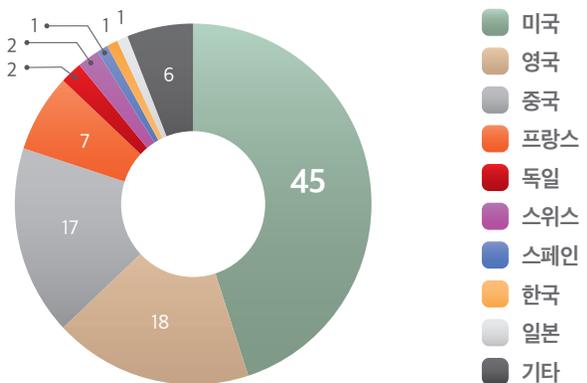
'The Art Market2023'*에 따르면 전 세계 미술시장의 45%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이 18%로 2위, 중국이 3위(17%), 프랑스가 4위(7%)다. 다음은 독일과 스위스가 각각 2%, 스페인과 일본은 한국과 함께 전체 시장의 1%를 차지했다. 이 보고서에 한국이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아시아 지역 딜러들이 가장 큰 매출 성과를 나타낸 가운데 한국이 40%의 매출 증가를 보이면서 가장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 The Art Market2023 세계 최대 아트페어인 아트바젤(Art Basel)과 스위스 금융사인 UBS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세계 미술시장 분석보고서

미술품을 구매에 관심이 있다면 1,2차 시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1차 시장은 화랑(갤러리), 국내외 아트페어 등을 말하며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직원에게 문의 후 구입 가능하다. 2차 시장은 서울옥션이나 K옥션과 같은 경매 회사로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자 등록 후 현장(유료) 및 온라인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미술품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출품작을 감상할 수 있는 프리뷰 전시를 관람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미술품 거래도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 미술시장 점유율(2022)

(판매 가치 기준, 단위 : %) 출처 | Art Economics(2023)



HANA ART CLUB

하나아트클럽

수장고 보관 서비스 제공

하나은행은 미술에 관심이 많은 VIP 손님을 위한 아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아트클럽에 가입하면 Art Bank & Service 이용이 가능하며,
각종 아트 관련 행사 개최 시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공서비스 |



하나은행 수장고 보관 서비스란?

- 미술품을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곳
- 금융권 최고의 아트뱅크를 지향하는 하나은행에서 서비스 제공
 - 향온, 향습, 방재, 보안시스템 완비
 - 을지로 4가에 위치(H.art1)
 - 하나은행 거래 VIP손님 대상(유료)

보관방법

보관종류	선반 타입 (가로 100cm*깊이80cm*세로200cm)	렉 타입 (가로 320cm*세로240cm)
보관방법	선반 전체 대여 또는 상/하 분할 대여	렉 전체 대여 또는 앞면/뒷면 분할 대여
보관품 및 제한	· 회화(평면, 입체, 판화, 서예), 조소, 설치 등 미술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보관 불가 · 보관상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미술품이나 멸실, 훼손의 우려가 있는 미술품은 보관 불가	
규격 제한	120호(가로 193.9cm 세로 130.3cm) 이하	100호(가로 162.2cm 세로 130.3cm) 이하

미술품 자문 서비스

- 미술품 매입/매도 자문, 아트포트폴리오 구성 제안, 작품 평가, 작품 관리 등
- * 서울옥션, 파라아트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자문의 범위에 따라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 관련 세금 및 상속 등 Advisory 서비스

- 자산관리 컨설팅센터 전문가/ 자문 제휴처 연결

미술 시장 동향 및 아트투자 정보 정기 제공 등

- 하나원큐M > 아트뱅크

정기/비정기 ART 행사 등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국내 최대 아트페어(KIAF & Frieze, Art Busan, 서울아트쇼 등) 초대권 우선 제공
- 갤러리 투어, 국내 및 해외 유명 전시 도슨트 투어 초청
- 아트 세미나, 유명 작가와의 만남 등 행사 초청
- 라이브 아카데미(대면/비대면 행사 포함) 제공



Family Office Service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

자산관리 명가 하나은행의 자산관리 노하우가
총 집약된 VVIP 손님 전용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종합 자산관리 솔루션

INTEGRATED WEALTH MANAGEMENT SOLUTION

절세, 부동산, 금융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그룹이 VVIP 손님과 가족을 위한 자산진단 서비스, 포트폴리오 제안 등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nformation

최적의 금융자산 운용

- VVIP 손님 전담 금융투자 애널리스트 1:1 맞춤 컨설팅
- 투자 성향 & 목적 반영한 포트폴리오 전략 제안

상속 및 증여 플랜 제시

- 손님 가족 상황을 반영한 상속세, 증여세 시뮬레이션
- 상속 및 증여 관련 쟁점 사안 사전 검토

부동산 투자자문

- 상업용 부동산 매매, 관리/운영 및 개발대행 컨설팅
- 제휴처 연계 해외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기업승계 & 기업 컨설팅

- 기업승계 전략 수립, 절세 방안 및 납세재원 제안
- 외부 전문기관 제휴 지배구조 변경, M&A 주선

복합 니즈 컨설팅

COMPLEX NEEDS CONSULTING

개인 자산관리 솔루션은 물론 운영 중이신 기업에 대한 자문까지 VVIP 손님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패밀리오피스 전문가그룹이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Information

기업 M&A 및 투자자문

- 지분 및 경영권 매각, 신규 투자자 제안
- 제휴 회계법인, 법무법인 연계 경영진단 서비스
- IPO전략 수립 및 지원

기부/자선 Hana Charity Service

- 보유 자산의 사회 환원 프로그램
- 공익법인 설립 안내, 공익신탁 연계 기부 집행 서비스

2024년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KOREAN WEALTH REPORT 16th EDITION

· 발행일 | 2024년 3월(통권 16호)

· 발행처 |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 집필진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윤선영 팀장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황선경 연구위원

하나은행 WM본부 김수형 차장

하나은행 WM본부 이동철 과장

· 홈페이지 | www.hanaif.re.kr

· 편집·디자인 | 골프헤럴드(주) www.golfherald.co.kr 02-567-2323

· 인쇄소 | (주)광문당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관련 문의

02-2002-2626

skhwang@hanafn.com

본 보고서에서는 부자, 대중 부유층, 일반 대중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분석했습니다.

1. 부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
2. 대중 부유층 금융자산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보유자
3. 일반 대중 금융자산 1억 원 미만 보유자

2024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조사방식

1. 하나은행 PB 및 손님 인터뷰

· 조사기간 | 2023.12

· 조사인원 | 16명

2.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3.12

· 조사인원 | 총 2,597명

(부자 746명, 대중 부유층 1,139명, 일반 대중 712명)

· 조사회사 | 코리아리서치

※ 본 제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손님이 바라보는 길, 오직 그 **하나**를 위해



Euromoney
2023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The Banker/PWM
2023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Global Finance
2023 글로벌 최우수 디지털 클라이언트 솔루션
2023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PBI (Private Banker International)
2023 북아시아 우수 PB은행
2023 아시아 최우수 프라이빗 뱅커

전세계가 인정한 글로벌 자산관리 파트너,
하나은행이 내일의 더 큰 기쁨으로 손님께 보답하겠습니다



튼튼한 퇴직연금부터
안정적인 노후자산까지
이제 **하나만 믿어요!**

믿을 수 있는 자산관리의

영웅은 하나

0!0!후
견해!♡